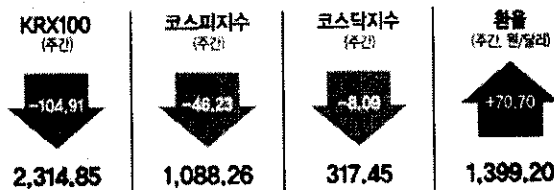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1.17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유가증권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증권선물거래소자료 11.10~14일)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통금자속	연가금	자산운용	기관계	외국인	개인	가타
매도	1,407	5,708	4,116	4,430	626	5,942	29,881	52,106	50,633	177,208	6,453
매수	1,109	7,457	4,236	4,347	305	7,904	29,647	55,005	42,941	182,647	5,769
순매수	▽298	1,752	120	▽82	▽320	1,962	▽233	2,900	▽7,692	5,438	▽694

주간 외국인·기관 매매동향

<기관>

종목	금액	종목	금액
P O S C O	1,230	L G 전 자	986
현대중공업	838	LG디스플레이	782
삼성전자	620	신한지주	668
현대모비스	616	우리금융	616
한국전력	473	하이닉스	477
현대미포조선	464	하나금융지주	386
현대제철	382	우리투자증권	372
G S 컴 설	346	K B 금 용	267
두산인프라코어	336	대우증권	236
K T & G	262	아모레퍼시픽	236
기아차	248	L G	213
삼성테크윈	246	기업은행	205
대우조선해양	243	외환은행	187
K T F	229	대우차판매	173
CJ제일제당	180	미래에셋증권	171

<외국인>

(단위: 억원, 기간: 11.10~14일)

종목	금액	종목	금액
LG디스플레이	814	P O S C O	2,063
K B 금 용	847	삼성전자	1,973
신한지주	475	대우조선해양	547
아모레퍼시픽	370	현대차	531
L G 화 학	286	삼성전자·버링	529
현대건설	229	현대모비스	492
삼성증권	224	현대중공업	467
우리투자증권	168	하나금융지주	452
하이닉스	154	한국전력	446
K T	113	K T & G	368
현대산업	109	S K 에너지	369
G S	107	현대제철	360
유한양행	100	현대미포조선	261
제일모직	88	삼성전자우	220
S T X 현오선	78	K T F	204

코스닥시장 주간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기간: 11.10~14일)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사모펀드	통금자속	연가금	자산운용	기관계	외국인	개인	가타
매도	59	81	104	60	25	159	728	1,215	1,960	46,734	484
매수	65	148	161	62	22	411	723	1,588	1,451	45,777	574
순매수	6	66	57	2	▽4	253	▽5	374	▽509	43	89

G20 금융정상회의의 한국은 'G20 체제' 최대 수혜국

이번 G20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를 주도할 '주도 3국(management troika)'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국은 영국·브라질과 함께 '주도 3국'으로 선정돼 5개 분야 47개 중·단기 개혁과제의 내용 및 추진 방법을 내년 4월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번에 원칙이 합의된 주요 금융개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들

내년 의장국 등이 공동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갑자기 생긴 포맷이어서 아직 회의의 운영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재무장관 회의의 규칙이 정상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됐고, 그 덕에 한국이 주도 3국에 끼게 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 8월 일본·인도네시아를 제치고 G20 재무장관 회의의 아시아 그룹 의장국(1년 임기)에 선출됐다. 선출 당시엔 별 주목을 못 받

재무장관 규칙 덕분에 '지도국' 자리에 국제경제·금융 재편때 위상 높일 기회

고 이를 회원국들 사이에서 조율해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사무국 역할이다.

또 내년 4월 30일 열릴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아직 의장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영국과 함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등이 주도 3국으로 선택된 것은 브라질이 올해, 영국이 내년, 한국은 2010년의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이기 때문이다. G20은 원래 1999년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로 창설됐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전년·당해

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가 부상하면서 한국이 뜻하지 않게 국제 금융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영국은 G7(선진7개국)의 멤버이고, 브라질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일원으로 G11(G7+브릭스) 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이 약했기 때문에, 'G20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란 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최중구 국제금융국장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뜨겁고



15일 오전 G20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발랑류지엄에서, 회의를 준비 중인 한 직원이 도열된 각국 국기를 가운데 태극기를 빼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큰 이슈를 맡은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이나 내년 의장국인 영국이 아니라, 한국·영국·브라질의 의장국단이 공동으로 개혁안 실무작업을 맡게 된 것은 이번 정상회의 도중에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처럼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주도 3국'에 들어간 것은 한국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운이 좋았던 측면이 크다. 하지만 새로운

글로벌 금융·경제질서를 재편하는데 있어 우리의 발언력을 키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 좌우해온 국제질서 편성에 처음으로 신흥 개도국이 참여하게 됐으며, 한국이 지도국 자격으로 신흥국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영국·브라질·IMF(국제통화기금) 등과 함께 조만간 태

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영국·브라질과 함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 감독당국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금융개혁안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등이 마련한 금융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국제금융시장의 주도권은 G7에서 G20로 옮겨갈 수 있다. 반면 개혁안이 실패하면 주도권은 다시 G7으로 넘어가면서 신흥시장국가들의 발언권은 약화된다.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금융시장·상품 규제 국제협력 강화”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1박2일의 짧은 일에도 불구하고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 공조를 확대하고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소 원론적이고 추가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신흥국까지 포함한 전세계 대륙의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상 처음으로 첫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개 원칙과 47개 중단기 실천 과제를 담은 11쪽 분량의 공동선언문에는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기준을 강화하자는 점이 강조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 개최에 앞서 유럽국가들이 주장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않고 내년 4월 2차 정상회의로 미뤘다. 대신 각국별로 상이한

IMF·世銀 등 금융기구에 신흥국 참여 늘리기로
초국가적 감독기구 창설은 내년 2차회의로 미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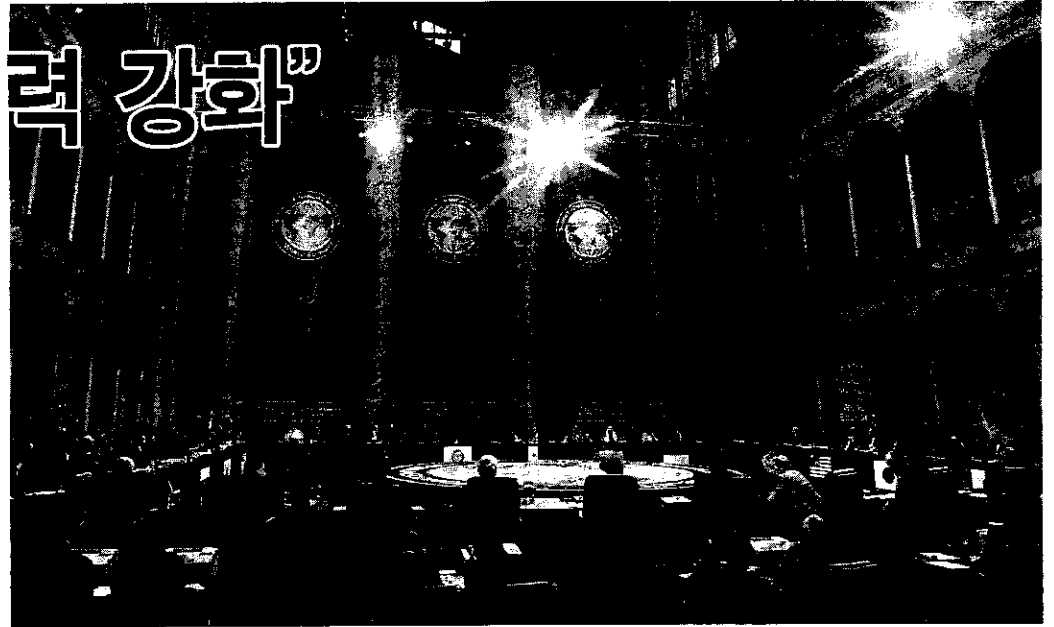
● 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일반원칙	신속 조치(2009.3.31)	중기 과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치평가기준 개선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국제회계기준 개선 작업 추진 -금융기구 위험 및 손실에 대한 공시 방안
금융 감독 및 규제의 개선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변동성 완화 위한 권고사항 도출 -신용평가사 공시강화 및 차별화된 평가기준 도입 -금융기관의 신용 구조화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CDS 및 장악시장 상품의 위험 감소 조치 강구	-자국 규제시스템 원칙 및 구조 검토 -은행, 증권, 보험 외에 규제 미흡한 금융부 문 규제조치 강구 -신용정보기관의 등록 -규제당국 및 중앙은행의 국제기준에 맞는 기준 도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시장인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교류 확대	-불투명한 불법 금융행위 및 기관에 대한 감 시감독 강화
국제협력 강화	-다국적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조치 이행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정기 교류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금융안정화포럼(FSF) 신흥경제국 확대 -IMF의 거시적 차원 정책 대응 및 조기경보 기능 제고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 재원 확충	-브레튼우즈체제의 포괄적 개혁 -국제금융기구에 신흥국 참여 확대 -IMF와 선진국은 개도국에 국제기준에 맞는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회계규정과 규제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각국 금
융감독당국 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

화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차
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빌딩주요층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G20 회원국 정상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스톡홀름 스웨덴 IMF 총재, 루버트 폴릭 세계은행 총재 등도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
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
영해 대표성을 확대자는 원칙에도 합의를 봤
으며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
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수장, 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확대 원칙도 마련했
다.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
원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 발생시 각국 규
제당국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
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과 과제들을 놓고 각국 재무장관
들은 액션플랜을 수립해 이행하되 조속한 시
행이 필요한 조치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이
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기과제로 추진하

기로 했다. 공동선언에는 “개방된 세계경
제를 위한 공약”을 담아 금융시장이 불안정
한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주의와 내국 지향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투자 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
야 한다고 강조, 보호무역주의 배제원칙을
선언문에 담았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서울경제

● 한국이 해야 할 일은

'펀드 등급제' '금융상품 압행어사제' 시행할 듯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감독을 강화하자'는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감독, 투자자 보호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주요 투자자 보호책은 '펀드 등급제'와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제도' 등이다.

펀드 등급제란 고객들이 펀드의 위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펀드를 투자위험과 상품구조에 따라 6~7개 등급으로 매겨서 공개하

는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고객으로 가장한 금융당국 직원이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또 파생상품 투자 펀드처럼 위험이 높은 펀드의 경우 판매자 자격을 제한하는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펀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30시간의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펀드 판매인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G20회의에서 지적된 금융회사 CEO의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행태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의 스톡 옵션(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등 임직

원의 보수체계를 고쳐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허용이 안 돼 있는 헤지펀드는 일단 예정대로 이르면 내년쯤 도입하되,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와 채무보증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외환 등 국제 금융정책)와 금융위원회(국내 금융정책)로 나뉘어진 금융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문제도 재론될 전망이다.

나지홍 기자 jhna@chosun.com

조선일보

복잡한 금융상품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

● G20 채택 중·단기 행동플랜 47개항은

선진·개도국 모임인 G-20 정상회의의 참가국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는 G20 각국이 실천해야 할 7개 부문의 중·단기 과제 행동플랜이 명시돼 있다. 7개 부문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 감독 규제의 개선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이들 부문에 대해, 공동성명은 47개 항의 구체적인 중·단기 행동플랜을 담았다. 참가국들은 이번 금융 위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책에 더 초점을 맞췄다. 단기 과제는 우선 순위가 높고 내년 3월31일까지 실천 가능한 항목으로, 중기 과제는 이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다.

참가국들은 '건전성 감독'과 관련, 단기 과제로 이번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에 합의했다.

또 신용 평가기관이 신용 평가 시 이해가 상충하는 것을 막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차별화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지나친 위험 추구를 방지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도록 합의했다.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투자하거나, 몰지마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기관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참가국들은 또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 체제,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측 입장이 반영됐다. 프랑스 등이 주장한 국제 금융 감독 기구 설립은 미국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각국별로 상이한 회계 규정

과 규제 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 기준을 채택하는 작업을 벌인다는 점이다. 참가국들은 문화가 다른 국가들이 단일 회계 기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 이를 '국제협력 강화' 부문의 중기 행동플랜으로 설정했다. 대신에 우선적으로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대형 금융 회사들이 조세피난처 등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없애야 한다는 유럽측 주장이 반영됐다.

또 참가국들은 '금융감독 규제'의 개선' 부문에서는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촉발되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파산법을 중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조선일보

“G20 성명 예상했던 수준 구체적 실천계획이 문제”

□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뉴욕 워싱턴 특파원】 “예상한 내용 그대로다.” “세부 실천계획이 문제다.”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을 뛰어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글로벌 금융위기기에 대한 공동대처와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 금융 부문 석학인 배리 아이겐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번 G20 정상회담 성명은 당초 예상한 대로이며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성명은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서 이는 G7보다는 G20 정상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G20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보다 더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룹이 너무 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합의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방향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고 핵심적인 그룹이 필요하다고면서 21세기에 맞게 새로 조정된 G7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세기형 G7그룹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남아공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7개국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시몬 존슨 MIT 교수도 이날 뉴욕타임스와 회견에서 “이번에 합의한 성명은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서도 합의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7 대신 G20 그룹으로 확대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했다.

국제 금융통화 전문가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제의했을 때 일



아이겐그린 교수

로고프 교수

손성원 교수

부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히 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이번 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기를 기대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이상하게도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큰 잘못을 경시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 전문가인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전 LA한미은행장)는 “이번 회의가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청사진을 내놨다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 때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G20 공동선언 내용은 각국이 반대할 이슈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 때 각국의 의제가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레임덕 상태인 부시 행정부 등이 진전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손 교수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번 회담에 글로벌 금융질서의 주도권을 유럽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고 아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목소리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G20 정상회담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다만 이들 국가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대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수수료 매년 10% 내린다

최장 3년까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출시되는 주식형 펀드는 판매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매년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장 많이 팔리는 'C형(선·후취 판매수수료가 없는 펀드)'은 판매보수가 매년 10%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의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다. 인하 기간은 최소 3년이다.

예컨대 판매보수가 2%인 C클래스 주식형 펀드에 2억원을 가입하면 첫째 판매보수는 200만원이지만 2년차

엔 180만원, 3년차엔 162만원으로 줄어 3년 동안 5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가 펀드를 처음 팔 때나 일정 기간 이내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를 떼는 펀드(A, B, D클래스)는 지금과 같은 방식과 스텝다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펀드도 판매사가 동의하면 스텝다운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텝다운 방식 판매보수 적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상품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펀드를 자주 갈아타는 것보다 한 펀드에 최소 3년 이상 투자하는 게 수수료 면에서 유리하게 돼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금감위도 최근 이 같은 방향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한 바 있어 표준약관 채택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민 기자

jkmo02@joongang.co.kr

한국경제

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A17면

펀드 판매보수 매년 10%씩 낮춘다

가입 2년째부터 계단식 인하...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자산운용협, 약관개정 추진

이르면 내달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 및 해외 주식형펀드는 판매사에 지불하는 보수가 가입 2년째부터 매년 10%씩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 가입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의 부담이 줄게 돼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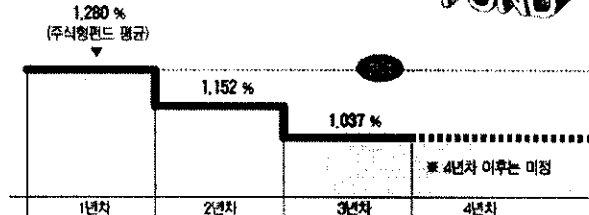
1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를 이 같이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표준약관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에 가입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는 '클래스C형'을 대상으로 가입 2년째부터 매년 판매보수를 10% 이상씩 최소 2년간 계단식(스텝다운형)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가입 첫째 적용되는 판매보수가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입 첫째 펀드 판매보수가 연 1.28%인 펀드의 경우 다음해는 1.152%, 3년차에는 1.037%로 낮아지게 된다.

펀드 가입 때 수수료를 먼저 떼는 선취형 펀드(클래스A)는 '클래스C'보다 낮은 보수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는 정률 방식과 보수를 다소 높인 뒤 매년 인하하는 하향 계단식 중 선택하는 방식이 될 것

추진중인 펀드판매보수 스텝다운형 인하 방안
※매년 10%씩 단계적 인하 가정



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수 인하를 4년 이후에도 적용할지와 기존 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줄지는 아직 미정이다.

협회는 이 같은 인하방안을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오는 18일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 이르면 이달 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봉환 협회 부회장은 "일단 펀드 전체 보수 중 비중이 큰 판매보수만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인하폭과 새 표준약관을 기존 상품에도 적용할지 등은 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조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표준약관이 마련되면 대부분의 클래스C형 펀드는 의무적으로 하향계단식 판매보수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펀드보수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펀드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오히려 높게 돼 있어 장기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들이 보수가싼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할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한 상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둔 일부 멀티클래스 펀드들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가 낮아 판매사들이 적극적으로 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잔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의 경우 판매보수가 일정한 클래스K형이 1조1700억원 이상이지만,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가 낮아지는 상품은 300억원 미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수수료 선취형 위주로 상품을 구성한다면 보수인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해영/김재후 기자 bono@hankyung.com

중소형 가치주 펀드도 키코에 코 꿰였다

관련주 편입한 90개 펀드 한 달 수익률 -16.2%
“급등락장선 키코와 관계없는 상품 골라야”

키코(KIKO·통화옵션상품)의 후유증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옥죄고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진정되는 듯 보였던 환율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일 원-달러 환율은 1399.2원으로 마감했다. 10월 말 기록한 1500선을 향해 질주하는 모양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를 포함한 환 관련 파생상품 손실을 공시하는 기업도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만 50개 가까운 기업이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왔던 중소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중소형 펀드의 편입 대상이 되던 기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키코, 끝나지 않은 위험=기업들은 3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 키코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는 공시를 쏟아냈다.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채권단의 구제로 이를 철회한 태산엘시디가 대표적이다. 3분기 손실액이 6000억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의 8800%를 넘는 수치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아이디에이치는 153억원(자기자본의 42.67%)을 까먹었다. 정보기술(IT) 마케팅 전문기업인 에스에이엠티는 키코 등으로 자기자본의 99.6%에 달하는 81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키코 관련주는 10월 말 환율이 안정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 태산엘시디는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제이브이엠(62%)·현진소재(64%)·우주일렉트로닉스(54%) 등 대부분의 키코 관련주가 50% 안팎 올랐다. 일부에선 “단기 급락한 지금이 오히려 투자 기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후

11월 이후 키코(통화옵션) 손실 공시한 주요 기업

기업	손실액(원)	자기자본 대비 비율(%)
태산엘시디	6092억1800만	8803.70
디에스엘시디	597억6900만	54.50
제이브이엠	550억2700만	71.01
KPX화인케미칼	258억1100만	27.59
선우에스티	249억1700만	34.22
재영솔루텍	187억6900만	20
아이디에이치	153억400만	42.67
상보	115억8400만	21.42
코다코	108억5300만	3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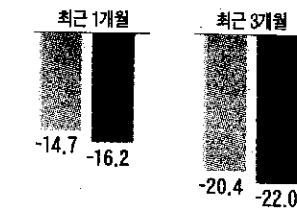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환율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은 지난 한 주간 10% 안팎 떨어졌다. 지난주 코스피(-4.1%)나 코스닥 지수(-2.5%)보다 낙폭이 컸다.

◆펀드 수익률도 부진=키코 관련주를 편입한 펀드의 성적도 좋지 못했다. 16일 현대증권이 키코 관련 종목을 1개 이상 편입(9월 말 현재)한 90개 펀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펀드의 최근 1개월(6일 기준) 수익률

키코 관련주 편입 안 한 펀드가 수익률 양호 단위:%, 6일 기준 수익률

■ 키코 관련주 편입 안 한 펀드
■ 키코 관련주 3% 이상 편입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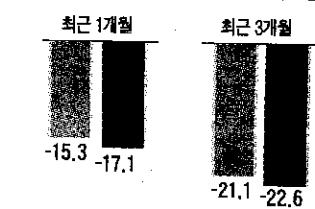


은 평균 -16.2%로 나타났다. 반면 키코 관련주가 없는 펀드는 같은 기간 -14.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가 하락을 우려, 키코 관련주를 편입한 펀드 대부분이 이들 종목의 비중을 줄여나갔다. 키코 관련주를 펀드 내 3% 이상 편입한 펀드는 9월 말 현재 조사 대상 펀드의 26.7%로, 8월 말(38.9%)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키코 관련주의 비중을 줄인 펀드의 성과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은 그러나

키코 관련주 비중 줄인 펀드가 수익률 양호 단위:%, 6일 기준 수익률

■ 키코 관련주 비중 줄인 상위 5개 펀드 평균
■ 키코 관련주 비중 늘린 상위 5개 펀드 평균



자료:자료인·현대증권

“성과 부진의 원인을 키코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라며 “최근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됐던 여파가 크다”고 설명했다. 키코 관련주를 편입한 펀드 대부분이 중소형 가치주 펀드라 최근 시장에서 부진했다는 의미다. 오 연구원은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키코 관련 이슈에서 벗어난 펀드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고한 기자

neoran@joongang.co.kr

키코 종목이 없는 주요펀드의 수익률

(단위:억원,%)

펀드명	설정액	1개월	3개월	2년
광개토일석이조주식	3,308	-8.5	-26.9	-11.1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종류형주식플래스C	3,430	-5.1	-21.3	-4.9
한국투자골드적립식합성그림주식 1	2,651	-4.1	-19.5	1.7
신영마라톤주식A1	5,731	-7.9	-27.2	-6.0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 1(A)	37,231	-4.0	-19.5	1.9
KB캐기루적립식주식	1,316	-11.8	-32.3	-14.8
CJ지주회사플러스주식 1-A	6,431	-10.7	-30.4	-
KB스타다가치성장주적립식주식 1	316	-12.0	-32.7	-15.8
KB스타업종대표주적립식주식 1	1,895	-8.7	-26.9	-11.0
광개토주식	3,868	-9.0	-26.3	-13.9
KB신광개토선취형주식	6,747	-8.0	-27.0	-0.5

*설정액 100억원 이상 펀드 대상, 수익률은 이달 13일 기준.

자료:현대증권

‘키코株’ 없는 펀드 수익률 선방

현대증권, ‘키코클린펀드’ 11개 분석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피해 종목에 한 주도 투자하지 않은 ‘키코클린펀드’들이 키코 종목을 편입한 펀드에 비해 수익률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16일 설정액 100억원 이상의 주요 국내 주식형펀드 105개의 편입 종목을 분석한 결과 키코 관련주를 한 종목도 편입하지 않은 펀드는 11개(상장지수펀드 제외)로 조사됐다.

해당 펀드는 광개토일석이조주식, 한국삼성그룹리딩플러스종류형주식C,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주식1, 신영마라톤주식A1,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주식1, KB캐기루적립식주식, CJ지주회사플러스주식1, KB스타다가치성장주적립식주식1, KB스타업종대표

주적립식주식1, 광개토주식, KB신광개토선취형주식 등이다.

이들 키코클린펀드의 1개월과 3개월 평균 수익률(13일 기준)은 각각 -14.7%와 -20.4%로 키코 관련종목을 3% 이상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20.4%, -22.0%)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증권사 오온수 연구원은 “키코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들도 키코 관련주의 편입 비중을 낮추고 있는데 이들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 말 기준으로 105개 주요 국내 주식형펀드 가운데 키코 관련 종목을 3% 이상 편입한 펀드는 전체의 26.7%로 전달 38.9%보다 낮아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 성적표는?

신생운용사·삼성그룹 관련 펀드 '선방'

심층 분석

지난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장에 돌입한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본지가 16일 펀드평가기관인 한국펀드평가에 의뢰, 지난 9월 15일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신생 자산운용사들과 삼성 그룹주펀드나 배당주펀드를 많이 굴린 자산운용사들은 비교적 선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 악세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가치주펀드 위주의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이 악화되는 이례적인 현상도 눈에 띄었다.

**‘트러스톤’ 가장 좋아... ‘실력’ 더 지켜봐야
한국밸류자산운용 등 가치주 펀드는 저조**

◆선방한 신생운용사들

조사 대상 기간 중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었던 44개 자산운용사 중엔 올해 새로 생긴 운용사들의 성적이 돋보였다. 리먼 사태 이후 수익률 상위 15위권에 3개 업체나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마이너스 16.28%의 수익률을 기록한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전체 1위에 올랐고, 에셋플러스자산운용(-21.11%), 메리츠자산운용(-21.3%)이 각각 12, 13위를 기록했다. 대부분 운용사 평균 수익률(-21.18%)을 상회하는 성적표다. GS자산운용은 조사 기준일인 9월 16일 현재 펀드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운용사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9월 초 출시한 ‘GS골드스코프주식1’(-13.11%)이 국내 주식형펀드 중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이들 신생업체들이 선방한 것은 주가 하락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에서 펀드 운용을 시작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래 된 대형펀드를 중심으로 환매가 일어나면서 이들 펀드의 포트폴리오 운용이 크게 흔들린 반면, 신생 운용사들의 펀드는 이미 주가가 고점을 지난 상태에서 설정됐기 때문에 환매 가능성도 적어 안정적 운

용전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신생 운용사들의 펀드는 길게 볼 때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 개선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신생 운용사 대표들의 경력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미래에셋 초창기 고속성장의 주역이었던 박건영 대표가 이끌고 있다. 그는 투자자문사 시절 연금급 분야 투자자문으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IMF외환위기 당시 1억원 중자돈으로 20개월 만에 156억원을 벌어들여 화제가 됐던 강방천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GS자산운용 역시 과거 한국투신에서 스타 매니저로 이름을 날린 뒤 교보투신 사장 등을 역임했던 김석규 사장이 이끌고 있다.

한국펀드평가 신건국 펀드애널리스트는 “다만 신생 운용사의 경우 아직 시장에서 실력이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주 펀드 운용사의 부진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해 장기투자하는 가치투자의 대표주자인

**리먼 사태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순위** (9월16일~11월13일, 설정
액 5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

순위	운용사	펀드수	수익률(%)
1	트러스톤	2	-16.28
2	한국	52	-16.69
3	신은	12	-19.29
4	KTB	7	-19.66
5	도이치	3	-19.68
6	하나UBS	46	-20.01
7	슈로더	1	-20.26
8	현대인베스트	4	-20.36
9	동부	10	-20.56
10	미래에셋	34	-20.67
11	한화	13	-20.78
12	에셋플러스	1	-21.11
13	메리츠	7	-21.30
14	아이	2	-21.36
15	삼성	57	-21.42
전체 운용사 평균			14.5 -21.18

(자료: 한국펀드평가)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이 회사 수익률은 44개사 중 최하위(-28.6%)였다.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위원은 “가치주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 때는 유리하지만 이번처럼 정신 없이 폭락하면 가장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작년 10월 말부터 리먼 사태 이전인 지난 8월 말까지의 하락장에서 한국밸류자산운용은 전체 자산운용사 순위 및 개별 펀드 성적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최근 하락장에서 가치주 중심 투자 성과가 저조했던 요인으로는 ▲ 대형주는 연금급 등이 하락세를 일정한 부분 받쳐주지만 중소형 위주의 가치주는 폭락장에서 되나주는 세력이 미약해 끝없이 추락한다는 점 ▲ 리먼 사태 이후 그나마 선방했던 IT 관련주가 가치주 투자 대상에는 거의 없다는 점 ▲ 가치주 펀드입수

주식 편입 비중이 높았다는 점 등이 꼽혔다.

◆삼성그룹주·배당주펀드 선방

반면 삼성그룹 관련 펀드나 배당주펀드 비중이 높았던 운용사들이 이번 악세장을 잘 방어해냈다. 전체 수익률 순위 2위에 오른 한국투신운용은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21.18%)을 상회하는 펀드를 23개 갖고 있는데, 이 중 15개가 삼성그룹주 펀드거나 배당주펀드였다.

운용사 수익률 상위권에 오른 산은자산운용이나 하나UBS자산운용 등도 주력인 ‘산은하이디배당주식1’이나 ‘하나UBS배당60주식1’ 같은 배당주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펀드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형 IT주와 KT, KT&G 같은 경기 방어주 편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현대증권 류용석 연구원은 “배당주 펀드에 편입되는 주식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종목 위주로 구성되어 때문에 폭락·폭등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해외펀드 2년새 20%넘게 까먹었지만

소비재섹터펀드 2.5%수익 '독야청청'

美·유럽비중 낮고 경기방어주 집중 편입 '선방'

해외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재 섹터 펀드가 최근 2년간 수익을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필수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나 초대형 유통업체를 편입하고 있는 펀드로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펀드 전문가들은 소비재 섹터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 기간이 짧아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 보유할 것을 권하고 있다.

16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소비재섹터 펀드의 2년 수익률은 지난 12월 기준으로 2.55%를 기록, 해외펀드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섹터펀드의 평균 수익률(-23.29%)과 해외 주식형펀드(-22.06%)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특히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SRI(사회책임투자)펀드의 수익률(-31.20%)과 비교해선 월등히 양호한 성적이다.

실제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1'과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주식1'은 2년간 12%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등 설정 후 2년이 지난 소비재섹터 펀드들이 대부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8월에 출시된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주식1'은 설정 후 수익률이 25%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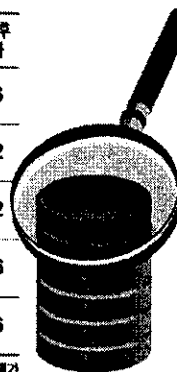
이 같은 소비재섹터펀드의 강세는 소비재섹터 펀드가 편입하는 종목이 대부분 호주의 울워스(Woolworth)와 웨스파머스(Wesfarmers)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와 경기애 민감하지 않는 KT&G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유럽 투자 비중이 낮은 데 따른 것이라 분석이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주식1'과

주요 소비재섹터주식펀드 (단위:억 원, %)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2년 수익률	설정 이후 수익률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 컨슈머어드벤처주식1	2006년 10월31일	380	11.27	12.86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 컨슈머주식1(CLASS-A)	2006년 8월14일	113	11.42	25.32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 컨슈머주식1(CLASS-A)	2006년 8월11일	3,334	9.62	23.12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 컨슈머주식1(CLASS-B)	2006년 6월1일	2,613	8.11	21.06
에셋플러스글로벌리지 투게더주식1	2008년 7월7일	209		-10.36

※설정액 50억원 이상, 11월 12일 기준

자료:한국펀드평가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1' 등의 국가별 투자 비중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47%와 3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23% 정도로 두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펀드의 미국 비중은 대부분 1% 이하였고, 유럽 비중은 거의 없었다. 개별 종목으로는 울워스와 웨스파머스가 20%에 달할 정도로

편입 비중이 높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금융위기가 내년엔 실물경기로 번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원유와 쌀 등 원자재 등과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 시장은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hu@hankyung.com

서울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A19면

● 1개월 수익률 상위 해외 주식펀드 현황

펀드명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초이후
우리CS일본SmallCap주식 1(Class C)	10.31	-27.89	-31.81	-40.85	-37.77
하나UBS Latin America주식자 1(Class A)	8.44	-26.07	-38.89	-25.17	-24.23
프랭클린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자Class A	7.67	-1.57	-16.82	-14.40	-11.83
KB브라질주식형자(Class-A)	7.44	-48.35	-54.78	-50.33	-48.09
JP모건브라질주식종류형자 1A	7.20	-38.48	-43.77	-	-
프랭클린브라질플러스주식형-A	6.48	-27.56	-42.76	-	-
삼성당신올위한투자재팬주식종류형자 2-A	5.46	-2.74	-16.69	-7.72	-9.32
NH-CA리비아메리카프리카주식C-w	5.16	-27.14	-40.03	-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주식형자 1(Class-C 2)	5.09	-37.71	-	-	-
한국월드와이드지배종류형주식P-1(C)	4.43	-25.31	-30.48	-39.61	-39.14
피델리티세계종류형주식-자(C)	4.37	-31.44	-30.72	-	-

※자료: 한국펀드평가

해외펀드 “플러스 수익률 얼마만이야”

816개중 91개 최근 한달간 최고 10% 넘기도

中·러는 마이너스 여전

‘얼마 만에 보는 플러스 수익률인가.’

각국 정부의 잇따른 규제금융책으로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해외 펀드의 수익률도 조금씩이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펀드의 경우 월 수익률이 10%를 넘기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16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해외 주식펀드 816개 중 91

개(월타플러스 포함)가 최근 1개월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우리CS일본스몰캡주식’ 펀드가 무려 10.38%에 달한 것을 비롯해 ‘프랭클린템플턴재팬플러스주식형-자’ ‘삼성당신올위한투자재팬주식종류형자’ 등 일본 펀드들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나UBS리비아메리카주식자 1’ ‘KB브라질주식형자’ 등 브라질 펀드들도 최근 브라질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6%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본리츠재간접

펀드의 월 수익률이 14.15%에 달한 것을 비롯해 주식형 중에선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와 유필라티 헬스케어 등의 섹터에서 각각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해외 펀드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 펀드가 마이너스 5.04%인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이머징마켓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특히 일부 러시아 펀드와 동유럽 펀드의 경우 최근 1개월 사이에 마이너스 25~30%에 달하는 손실로 투자자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fiat@sed.co.kr

외국계펀드 ‘팔자’ ..신고의무없는 지분 5%미만 종목 속출

‘보이지않는 매물’ 주의보

외국계 ‘큰손’인 주요 펀드들이 ‘셀 코리아’를 지속하면서 개별 종목의 보유 지분을 신고 의무가 없는 5% 미만으로 대거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이 주식을 추가로 팔아도 알 길이 막연해 주가에 ‘보이지 않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애크퍼니LLC는 리버브더더스가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직후인 지난 9월16일부터 한차례 630만여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매각 대금은 1570억원에 이른 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7.47%에서 0.25%로 떨어졌다. 이 회사는 오스템과 오스템인플란트 현대DSF 유니온 등의 주식도 대거 정리했다.

외국계 펀드의 매각 종목은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금융·건설주가 주 타깃이 되고 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캐피탈리서치애크매니지먼트는 하나금융지주 219만여주(820억원가량)를 매각한 것을 비롯해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각각 419만여주, 421만여주씩 팔아치웠다. 한라건설 27만여주도 매각했다.

호주계 백리은행도 중앙건설

외국계 펀드 지분 매각 주요종목

외국계 펀드	종 목
캐피탈리서치애크매니지먼트	하나금융지주 YBM시사닷컴 삼성엔지니어링 JWM 네페스 부산은행 대구은행 현진소재 한라건설 심혁
JF에셋매니지먼트	한양증권 풀무원 우리투자증권 성신양회 가온전선
모건스탠리애크퍼니LLC	오스템 오스템인플란트 현대DSF 링크웨어 한진해운 유니온 다음
슬로안로빈슨	효성 대우차판매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	웅진코웨이 성지건설 벽산건설
싱가포르투자형	하나투어 케이프
메릴린치인터내셔널	엔트론스토틀리테크놀로지
UBSAG	현대백화점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원	동아화원그룹
백리은행	이상네트웍스 성지건설 중앙건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CJ홈쇼핑

자료: 금융감독원

의 지분 5.03%를 모두 정리했으며, 성지건설 지분율도 7.8%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JP모건의 계열사인 JF에셋매니지먼트도 우리투자증권과 한양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특히 외국계 펀드들은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주식을 정리하고 있어 ‘셀 코리아’가 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캐피탈리서치애크매니지먼트는 JWM과 현진소재 주식을 과거 4만원 선에서 사들였지만, 최근 두 달 사이의 평균 매각가격은 각각 1만 5000원, 1만 2000원 선이었다.

한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외국

계 펀드들은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당분간 매도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들 펀드의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로 매각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외국계 펀드의 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은 오스템 현대DSF 한진해운 유니온 성지건설 하나금융지주 YBM시사닷컴 네페스 한라건설 한양증권 풀무원 가온전선 효성 대우차 판매 벽산건설 케이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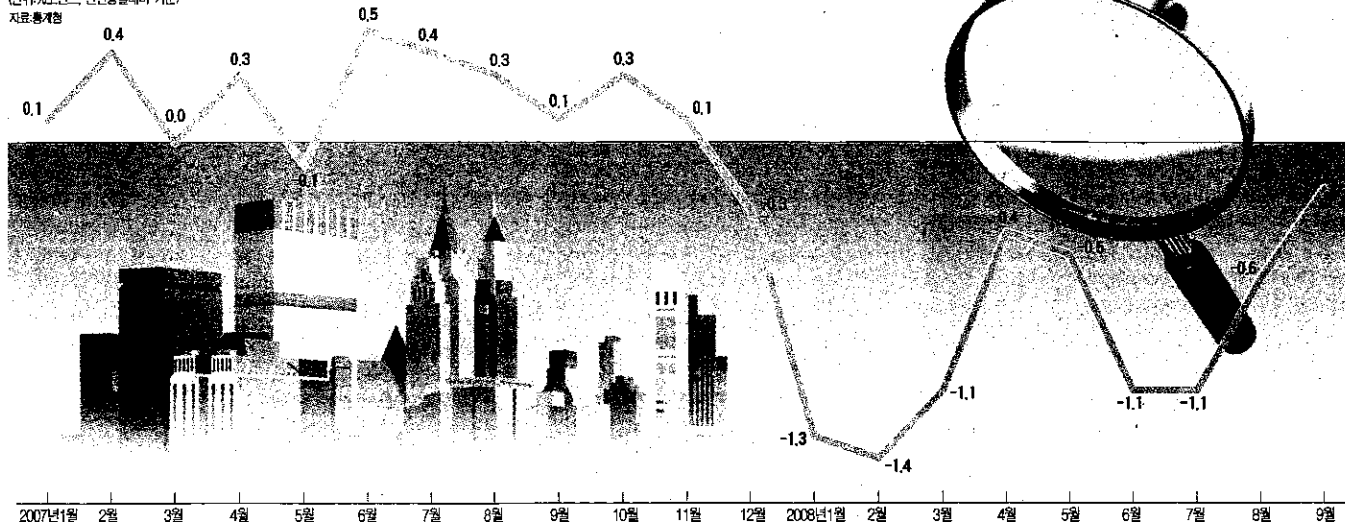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금융위기·경기침체 탈출

평균 1년9개월 걸려

내년 상반기 증시 상승세로
2010년께 경기 회복 기대

경기 선행지수 증감 추이
(단위: %포인트,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통계청



‘과연 바닥이 언제인가’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어디에서도 확실한 시그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등 장세로 전환됐다 이내 탈색 주저앉아 바닥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계적으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단 번에 치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과거에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통해 바닥 탈출이 언제쯤 가능할지를 가늠해본다.

◆경기선행지수로 본 바닥

현재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경기선행지수다. 이 지수는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주가지수 등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지수가 높으면 경기 전망이 밝으며 수치가 낮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국내 경기선행지수의 증감률이 정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기간이 평균 15개월이었다. 작년 11월 이 수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4월쯤 이 지수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12월 115.8로 단기 최고점을 기록했다. 통계적으로 경기선행지수와 국내 주가 흐름이 거의 일치하거나 1개월가량 선행하는 편이다.

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선행지수를 보면서 투자하면 최소한 무릎 위에서 사서 목에서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과 교역조건으로 본다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가진 실탄이 풍부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야 한다. 이 때문에 유동성 지표의 변화를 통해 ‘바닥 탈출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 유동성 지표 중 가장 연관성 있는 수치로 금융회사 유동성(Lf)을 많이 사용한다. 경기선행지수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Lf는 결제성예금, 현금,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으로 구성된 M2에 금융회사의 기타 예수금 등을 합해 산출한다.

이제만 동양증권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선행지수에 선행하는 Lf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될 때 증가한다”며 “지난 달부터 회복세를 보인 Lf가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도 금융 시장 추이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 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이 클 때는 이 값을 제대로 산출하기 쉽지 않다. 이때는 국내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반

도체 가격지수를 원유 가격지수로 나누어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말 저점을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수와 Lf는 보통 경기선행지수에 비해 1개월가량 빨리 움직이며 실제 경기보다는 10개월 선행한다. 따라서 앞으로 10개월 이상이 지나야 실물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기와 불황 극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경기선행지수보다는 늦지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시점이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때다.

경제성장률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다. 올해 경

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개선된다면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짐작할 수 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치고 2010년에는 4~5%대로 회복된다고 보는 전망이 많아 내후년쯤에는 국내 실물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수를 종합해볼 때 내년 상반기 중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실물경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바닥을 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그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한 뒤 다시 이를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1개월이었다. 이제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나 한국이 작년 4분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면 2009년 1분기 이후 바닥을 치고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국경제

개인 비중 커진 증시...어떻게 달라졌나

이젠 주가 싸진 대형주로 '치고 빠지기'

주식 회전을 22% 넘어 6년만에 최고 수준

직접투자계좌 늘어...키움증권 점유율 15%로 확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증시에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펀드 투자가 사들해진 대신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 것과 예전에는 중소형주 위주였던 개인들의 투자 대상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단타성 거래가 여전히 많아 빈번한 매매로 주식 회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가 하락이 본격화된 지난달 이후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해 고객예탁금은 늘어난 반면 펀드 자금 순유입은 거의 끊긴 상태다.

개인의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지난달 6047억원 불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지난 13일 현재 10조6283억원으로 602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는 같은 기간 1237억원(E TF 제외)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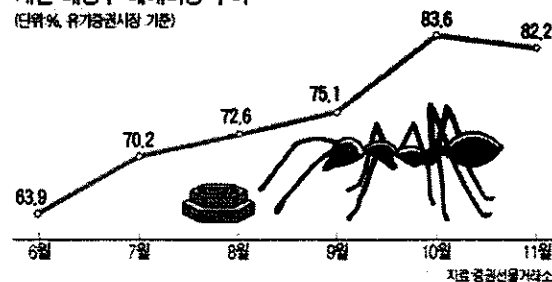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계좌 수도 급증하고 있다. 활동 계좌 수는 개인들의 활발한 투자를 반영, 지난달 7만2391개 증가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8만7626개나 급증했다. 활동계좌란 예탁금이 10만원을 넘으면서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있었던 계좌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많은 온라인 증권사는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신바람을 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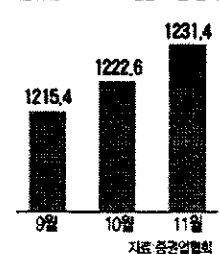
온라인 주식거래 부문 1위 증권사로 업계 최저인 0.015%의 거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이달 시장점유율은 외환위기 이후 업계 최고인 15%를 웃돌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하루에 개설되는 신규 계좌 수가 8월에 비해 3~5배 정도 늘었다"며 "이 중 70%가량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투자자였고 10%는 한동안 투자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비중이 높은 키움과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을 합치면 전체 개인 위탁거래시장의 40%를 웃돈다"고 말했다.

개인 대형주 매매비중 추이
(단위: %, 유가증권시장 기준)



주식투자 활동계좌수
(단위: 만개) ※11월은 14일 현재



이경수 토러스증권 투자분석팀장은 "해외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개인들 중 일부가 펀드 수익률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우량주 투자에 직접 나서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실제 증시에서 개인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 비중은 61.86%로 높아진 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20% 아래로 폭 떨어졌다. 올 들어 9월까지 개인 비중이 월평균 46.13%에 머물렀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시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하루 변동성은 4.79%로 지난해 평균 1.55%보다 3배나 높아졌다. 이는 개인들의 짧게 치고 받는 단타성 거래로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인 주식 회전율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회전

율은 22.6%로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개인의 대형주 투자 비중은 82.23%로 증가한 반면 소형주는 4.05%로 급감했다. 올 9월까지 대형주와 소형주 비중이 각각 70.51%, 11.72%였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이에 따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판도도 달라졌다. 개인은 이례적으로 대표적인 고가주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은 2925억원어치나 사들였다. 현대차(1528억원) 포스코(1336억원) LG전자(1330억원) 등도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펀드 배상결정후 금감원 민원 4배 ↑

“수익을 회복 멀었다” ELS 투자자도 집단소송 움직임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우리파워인컴 펀드의 판매사에 대해 50%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반토막 펀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런 불만에 조응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 ELS도 분쟁 대상으로 떠올라

16일 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펀드, 선물환 펀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에 이어 ELS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집단 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기 펀드 카페인 ‘펀드스쿨’에 자신을 세무사라고 밝힌 이모(62)씨는 ELS 투자로 50~80%의 손실을 봤다면서 만기 연장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LS는 특정 기업이나 업종 혹은 시장 전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주가가 일정 정도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형 펀드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설정된 범위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조기 환매되어서 수익이 제한적이지만 설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식형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ELS가 주식형 펀드보다 안정적이라고만 선전했으나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피할 수 없다. 하루에 24건 정도였던 금감원 펀드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 12월 96건에서 13일에는 97건으로 4배나 늘었다.

■ 펀드 분쟁 관련 인터넷 카페들

	회원수	개설일
우리카위인컴펀드 소송추진모임	23명	9월9일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	121명	10월20일
미래에셋 인사이트 집단소송을 위한 모임	657명	10월21일
인사이트펀드소송준비모임	55명	10월24일
파워인컴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	4126명	10월27일
펀드손실 & 주식손실 불완전판매 피해자 전문 소송	89명	10월30일
해외 펀드 가입과 환율 손실(환헤지 손실)로 인한 소송 모임	66명	11월6일
인사이트펀드 단체소송	16명	11월13일

■ 펀드 관련 금감원 민원접수 건수 일일 평균 24건

일일	금감원 우리파워인컴펀드 50% 배상 결정
11월 11일	96건
12일	97건

● “반토막 펀드 원금 회복 최소 2~3년”

여기에는 반토막 수익률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카페 ‘펀드스쿨’이 반토막펀드의 원금 회복 기간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2~3년이라고 답한 사람이 49%를 차지했다. 5~6년도 26%나 됐다.

그러나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토막이란 펀드가 투자한 주가가 -50%라는 애긴데, 이것이 반등해 원금을 회복할 수 준이 되려면 앞으로 주가 상승률이 100%

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릴 땐 반이지만 오를땐 두배가 올라야 한다. 이럴 경우 매년 +10%의 이득을 얻는다 해도 10년이 걸리고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해도 7년이나 걸린다. 그나마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또 손실이 커지면서 펀드들은 주식 편입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도 수익률은 여기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PB본부장은 “현재 손실나

펀드 가운데 회복이 늦어질 것 같은 펀드는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펀드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수익을 악화 때문에 거론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자산운용협회는 매년 판매 수수료의 10%는 낮추는 펀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판매 보수 업계 평균이 1.28%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해에는 1.152%, 그 다음 해에는 1.037%가 된다. 또 펀드업계 대표주자인 미래에셋은 펀드별로 운용보수를 차등화한 뒤 투자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펀드 클래스1에 가입하면 2~3년 단위로 보수가 좀 더 적은 클래스2 클래스3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회의 판매보수 차감률 10%는 너무 작고 미래에셋의 운용보수 인하안은 전체 보수 가운데 운용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예 수익을 못 냈을 때는 운용보수를 없애자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시장에 갓 진입한 소규모 신생사 아니면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뿐 아니라 수수료를 받은 만큼 제값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투자설명서 안 줬거나 과장광고 땀 투자자 유리

펀드 소송 판례 보니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불만을 이루고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파생상품 펀드를 판 경우다.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온 70~80대 노인에게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보장해 준다면 펀드를 판 은행도 있었다.

은행·증권사가 역외펀드를 팔면서 선물환 계약을 따로 맺도록 권유했지만 정작 판매 직원조차 위험성을 모른 경우도 있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투자자는 “한 운용사의 중국 역외펀드에 2000만원을 넣었다가 대부분을 날렸다”며 “판매 직원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문자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본점에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고 하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은행의 프라이빗뱅킹 담당 직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고객의 돈으로 펀드를 이리저리 갈아타다 손실을 낸 사례도 있다. B자산운용 임원은 “지난해 펀드 바람이 불자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진 은행·증권사 직원들이 펀드의 위험성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유혹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과거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집단소송에서 투자자가 이긴 사례는 러시아펀드가 대표적이다. 1996년 한국투자신탁증권이 판 이 펀드는 러시아 국



우리파워인컴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투자자가 14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가 은행 측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에 투자하는 채권형이었다. 주식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예상 수익 연 15%대’라는 말을 쉽게 믿었다. 하지만 98년 러시아가 국제에 대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바람에 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법원은 러시아 국제에 투자하면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투자설명서를 나눠 주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도 5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던 게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펀드가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서도 러시아펀드 판례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았거나 ‘수익률 몇 % 보장’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광고 전단지가 있으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판매사나 운용사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복잡해진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동소송도 추진되고 있지만 펀드 소송은 집단화하기가 까다롭다. 투자자마다 금융상품 지식이나 투자 경험이 다르고 펀드 가입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 앙 일 보

“가능성 없는 소송 권유도 불완전판매”

바이코리아 소송 맡았던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사진) 씨는 증권 피해 관련 소송의 1세대 변호사다. 러시아 펀드나 바이코리아 펀드 사건도 맡았다.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서도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김 변호사도 “억울하다고 모두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파워인컴펀드 외에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문의가 오나.

“환헤지 피해나 리먼브러더스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처럼 복잡한 구조의 펀드 관련 문의가 많다. 물론 일반 주식형 펀드도 있다.”

-소송마다 이길 확률이 차이가 있나.

“그렇다.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증거가 확보돼 있고, 금감원 결정도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얼마를 배상받을지는 알 수 없다. 리먼 관련 소송은 중간 정도지만 가능성은 있다. 일반 주식형 펀드는 배상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

-손해를 본 많은 펀드 투자자들이 민원이나 소송을 내면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입할 때 판매사 직원으로부터 수익은 많고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투자자로선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유망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판매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도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법적인 잘못을 입



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내겠다고 하면 모두 말나.

“상담을 통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말지 않는다. 상담은 수십 건 들어오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어 걸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몇 개 펀드에 집중할 생각이다.”

-일부 변호사는 소송을 권유하는 문자까지 보내며 부추기고 있다는데.

“소송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 누구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 승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불완전판매다. 재산을 잃고 억울해하는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릴 수 있다.”

중 앙 일 보

“펀드 유지하려면 수백만원 더 내라고?”

‘강통 역외펀드’ 소송 준비

며칠 전 S씨는 외국계 운용사의 중국펀드에 투자한 2000만원 중 200만원가량을 강제 환매 당했다.

환매지 차원에서 판매사와 1년 만기로 선물환 계약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펀드에 계속 투자하려면 980만원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통보받았기 때문. S씨는 “투자금액의 10분의1밖에 안남은 돈을 유지하기 위해 원금의 절반을 더 내야 한다는 데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씨는 그나마 나은 경우다. K씨의 펀드투자엔 ‘250만원’이라고 찍혀 있다. 13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액 중 증시 급락에 따른 펀드 손실이 900만원, 여기에 650만원가량의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평가잔액 400만원에다 25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증시 급락에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역외펀드 가입시 선물환 계약을 한 투자자들이 강

피해자들 “판매사, 환율상승시 손실 고지 없었다”

통펀드’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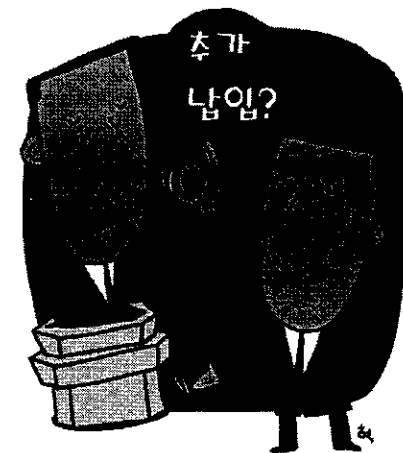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판매사와 선물환 계약을 했으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한 것. 상승분에 대한 추가 환매지 비용이 고스란히 투자자 몫으로 돌아온 데 따른 결과다.

국내 운용사가 출시한 해외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운용 과정에서 환해지를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역외펀드는 해외운용사가 달러나 유로화로 해외 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자체 환해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선물환 계약을 따로 해 환율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택사항일 뿐 필수가 아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이 환해지를 했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는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물환 계약을 마치 역외펀드 가입을 위한 필수 과정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은행에선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으니 환해지를 하는 게 좋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다”며 “계약이 만기된 1년 후에도 가입 당시 환율이 적용받는 줄 알았다”고 분개했다.

개방형 펀드와 만기가 정해진 선물환 계약의 결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물환 계약이 통상 1년 만기로 이뤄지는 탓에 1년마다 은행과 환율 차액을 정산해야만 펀드투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중국펀드선물환계약 피해자소송모임’(http://cafe.daum.net/chinfund)을 통해 역외펀드 환손실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논란의 시발점인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 뿐만 아니라 ‘블랙록월드광업주펀드’ ‘슈로더브릭스펀드’ 등 국민·신한·우리은행 등에서 판매된 역외펀드 전반으로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경기도 투자펀드 실적 저조

벤처2호·車부품조합 등 수십억 손실
“보전조건 출자... 실제로는 투자액 회수”

경기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투자펀드의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산한 경기벤처펀드2호 등 일부 경기도 투자펀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손실로 청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4월 전체 148억원 규모로 구성된 경기벤처펀드2호는 지난 4월까지 6년 동안 운용됐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120억원에 불과, 27억원의 손실을 남겼다.

하지만 도는 펀드 주관사인 산은캐

피탈이 손실(21억원)을 충당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 50억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1월 청산한 자동차 부품산업경영력강화조합펀드도 2001년 1월 이후 3년동안 운용됐지만 10억원의 손실이 났다. 도는 이 펀드에 30억원을 출자했지만 투자손실 10억원을 주관사인 인베스트 유나이티드가 떠안아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했다.

경기도와 동양창업투자가 출자해 운영중인 경기광동성펀드와 경기-충남 이 공동 출자한 삼성1호펀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대란에 맞붙어 세계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펀드 폭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광동성펀드는 파트론과 삼성수산 등 4개사를 코스닥에 등록시켰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9억5,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주가 급락으로 펀드운용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금액을 전액 보전 받는 조건으로 출자했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일기자 yjyun@sed.co.kr

한국경제

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A16면

‘0원’ 해외주식형펀드 이달 자금이동

1475억 들어오고 같은 금액 빠져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자금 이동이 사실상 ‘제로’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로 새로 들어온 자금과 유출된 자금 규모가 똑같아 숫자상으로는 자금 유출입의 합계가 0원을 기록한 것이다.

1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해외 주식형펀드에선 138억원이 빠져나가고 138억원이 새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이날 해외 주식형펀드의 순유출입액은 0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해외 주식형펀드에선 총 1475억원의 자금이 들어오고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숫자상으로 움직인 자금은 0원으로 계산됐다.

이처럼 해외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입액과 유출액이 똑같아진 것은 최근 몇 달간 지속된 자금유출세가 진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 7월 7821억원 감

소한 것을 시작으로 △8월 5181억원 △9월 6209억원 △10월 8566억원 등 매달 자금이 빠져나갔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 동안 이미 한 차례 환매바람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자 해외 펀드 투자자들이 자금을 움직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하루 평균 해외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출입 규모는 지난달 974억원에서 이달 36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12월 112억원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지난달 30일 이후 9일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총 1476억원이 새로 들어오며 지난달 5010억원 유출세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다.

김재우 기자 hu@hankyung.com

해외 주식형펀드 자금 유출입 뚝 끊겨

해외 주식형펀드의 자금 유출입이 뚝 끊겼다. 지난 며칠간 계속됐던 자금 유출이 멈췄지만 들어오는 자금도 미미한 수준이다.

14일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외 주식형펀드에는 3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11

월을 통틀어도 고작 24억원의 자금 유입(상장지수펀드 제외)만이 있었다. 보통 주식형펀드에서 하루에 수백억원이 들고 나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자금 이동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다. 개별 펀드별로 살펴봐도 20억원 이상 자금이 유입됐거나 빠져나간 해외 펀드가 전

무했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 펀드는 중국·브릭스 등 주로 이머징 국가에 치중돼 올 상반기에 이미 큰 손실이 났고 이 때문에 7월부터 월간 기준으로 줄곧 자금 유출이 진행됐다. 10월에만 8,566억원이 유출됐으며 최근 4개월간 해외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총 2조 8,508억원에 이른다.

/이성훈기자 flat@sed.co.kr

채권안정펀드가 시장 혼란 키운다?

외부수혈 없이 기존채권 팔아 자금 마련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 수급불안 우려

정부가 만들기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오히려 채권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10조원의 펀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불확실한 데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공급 계획이 빠져 있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축 효과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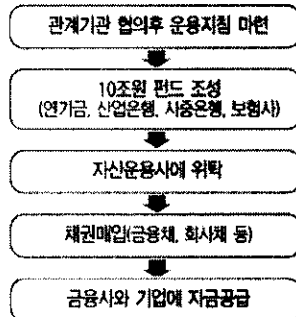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펀드가 채권시장의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펀드는 산업은행 연기금 은행 보험 증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카드채나 회사채 등을 주로 매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 역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펀드 조성을 위해 돈을 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만약 이들 금융회사가 펀드 조성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존에 보유 중인 국고채 등 환금성 좋은 채권을 팔 경우 채권

시장의 수급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국고채를 파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융위원회의 펀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고채(3년물 기준) 금리가 0.3% 포인트나 급등(채권값 급락)한 데 이어 14일에도 0.16%포인트나 뛰었다. 국고채 금리가 뛰면서 회사채(3년물 AA- 기준) 금리도 덩달아 상승, 14일에는 0.20%포인트 급등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데 치밀한 실행계획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방안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그동안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고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산 반면 회사채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두 채권의 금리차가 너무 벌어졌다”며 “일시적으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펀드가 회사채 등을 매입하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조치 불가피

전문가들은 그러나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권력을 가진 한은의 참여를 통해 채권시장 밖에서 신규 유동성 공

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에널리스트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한은이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등 신규 자금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당초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카드채와 같은 제2금융권 채권 등 신용도가 떨어지는 채권을 매입하는 데 대해 소극적인 입장였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선 펀드가 조성되면 ‘결국 한은도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한은이 자주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데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실패하고 채권시장의 혼란이 커지면 한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련부처들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지금은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용석/정재형/강지연 기자
hohoboy@hankyung.com

대우차판매發 펀드환매 사태 오나

어음 편입한 펀드에 900억 요청쇄도...총 7개펀드 인출중단

자금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편입한 펀드에 투자자들의 환매가 쇄도하면서 운용사에서 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추가 손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빼내려고 해도 이 회사 기업어음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처분할 길이 없어 인출이 막혀 있는 것이다.

1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로 신청한 신성건설 관련 펀드를 포함해 이달 들어 환매중단된 채권형 펀드가 총 7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1999년 대우채 사태 때와 비슷한 '부실채권발(發) 펀드런(대량환매사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13일)과 알파셋자산운용이 내놓은 '알파셋위너스채권형1'(12일)의 환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들 펀드가 편입한 대우차판매 관련 ABCP에 대해 투자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설정액 1188억원 규모인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에는 지난 11일 이후 사흘간 총 600억여 원의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렸다. 알파셋위너스채권형1(설정액 738억원)에도 11일부터 이틀간 300억원의 환매 요청이 집중됐다. 최근 사흘간 두 펀드에서 전체 설정액 대비 46%에 달하는 900억원의 환매 요청이 쇄도했다.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은 대우차판매 ABCP 편입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두 회사 관계자는 "지금 당장 환매에는 문제가 없으나 환매가 단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자금시장 위축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올해 환매 연기된 펀드상품

발행일자	회 사	펀 드
3. 3	한화투신운용	한화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1
9.16	마이애셋자산운용	MY Dual Star파생상품D-1
9.16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 2Y파생상품16-1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코리아회사채1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코리아회사채12M-1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2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3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5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즐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5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즐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6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즐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7
9.16	우리CS자산운용	우리2Star파생상품KH-3
9.16	우리CS자산운용	우리2Star파생상품KW-8
9.17	하나UBS자산운용	하나UBS기업은행-삼성중공업주거연금파생1
10.16	우리CS자산운용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
11. 4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코리아채권1
11. 4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자비스50혼합안정성장형1
11. 4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자비스30혼합안정형1
11. 4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더블드레곤종류형채권혼합
11. 4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더블드레곤종류형채권혼합
11.12	알파셋자산운용	알파셋위너스채권형1
11.13	플러스자산운용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

*자료=자산운용협회

환매 중단은 향후 대우차판 ABCP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까지 환매를 신청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신청한 투자자부터 환매를 해주는 '선입선출(先入先出)' 방식을 택할 경우 남아 있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양사는 이달 25일부터 유동화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환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산매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0일 만기가 도래한 한독디엠씨제오차 ABCP 850억원을 시행사 대신

값아야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부족해 결제일을 하루 넘기고도 상환하지 못했다.

이후 11일 미상환된 ABCP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결국 주가 역시 11일부터 사흘 연속 하락가를 기록했으며 14일에도 1.95% 떨어진 6030원에 머물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99년 대우채 사태 당시에도 초기에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쇄도하면서 이와 비슷한 혼란을 빚은 적이 있다"며 사태가 다른 펀드로 번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시에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빚어졌고 결국 정부까지 나서 투자자 손실을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으로 상당 부분 메워주고 나서야 사태를 매듭지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법정관리로 들어간 신성건설 회사채 총 130억원어치를 보유한 도이치투신운용의 5개 펀드가 환매 중단사태를 빚었다. 이들 펀

드는 지금까지 환매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신용위기가 부각되면서 11월에만 환매 중단 건수가 7건에 달하는 등 폭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화기자

용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회사채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만기가 보통 90일로 짧아서 꾸준한 연장이 필요한 만큼 자금 검색이 나타날 때 ABCP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이 많다.

불완전판매 배상 조정이후 펀드 창구에서는

“전엔 대충하더니 이젠 질리도록 설명”

“펀드 판매창구에서 설명을 듣다가 지겨워서 ‘이제 그만 됐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설명을 끝내더군요.”

최근 펀드 가입을 위해 회사 근처 은행 지점을 찾은 자영업자 고정욱 씨(가명)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고씨가 펀드 가입 의사를 밝히자 PB(프라이빗뱅크)룸으로 데려가더니 계약조항을 하나씩 모두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펀드 하나 팔려고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해도 되나 심을 정도였다”고 했다. 30분이 지나도 설명이 끝나지 않아 결국 고씨가 나서서 말을 끊고 나서야 겨우 끝났다. 그것도 직원에게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해준 후에야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이 ‘과워인컴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상품 1개 파는데 30분 이상 걸려

일부 은행지점 펀드판매 꺼려

투자자들 “반토막났는데 이제...”

후 일선 은행의 펀드 판매 행태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고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더 이상 펀드에 투자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설명을 잘해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나”는 푸념이다.

◆판매 창구직원 “입이 닳도록 설명”

불완전 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일선 창구 직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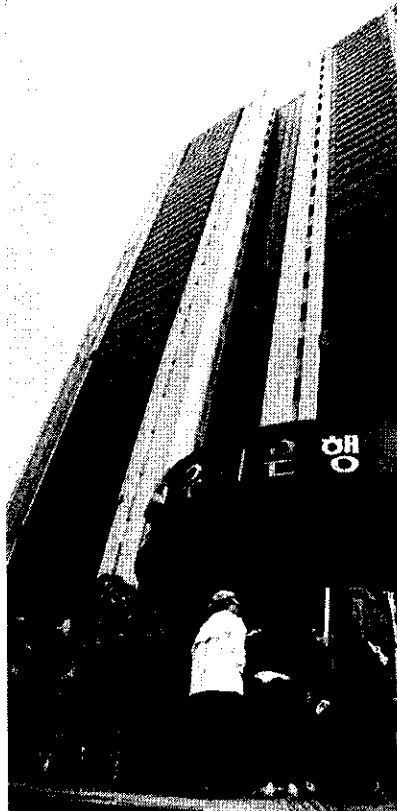
한 증권사 판매창구 직원은 “행여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빼먹지는 않았는지, 또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느끼는지 등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진록 대우증권 자산관리센터장은 “일선 직원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모 증권사 PB센터 직원은 “바쁠 때면 대강 설명하고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생각이 있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몇 번이고 고객이 질려서 손사래를 칠 때까지 해도 안심이 안 된다”고 털어놓았다.

펀드 판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우선 다른 용무로 지점을 찾은 고객에게는 펀드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우리은행 모 지점 직원은 “펀드 가입 권유는 원하는 고객에게만 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대상 등 상품 설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 펀드 들어내” 우리과워인컴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14일 판매를 맡았던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불완전 판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영업지점장들도 하반기 영업점평가지표(KPI) 목표를 채우는 데 있어 펀드를 우선 목표로 빼고 있다. 우리은행 한 지점장은 “하반기 KPI 목표는 배정돼 있으나 불완전 판매 판정 이후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다”며 “예금 등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만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직원 인센티브 확 줄여

회사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불완전 판매 TF’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 지점장 회의부터 불완전 판매 관련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증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CD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른 증권사들도 지금까지의 불완전판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당장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배상할 처지가 된 우리은행은 적극적인 펀드 판매를 자제

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은행은 내년 2월부터 펀드판매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판매인들은 주식형과 해외펀드의 경우 계좌당 2000만원 이하까지만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1년 이상 펀드 판매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됐던 정책을 수정한 것. 이와 함께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성호형 고객에겐 예금만을 권유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0~30명 이상의 고객 요청이 있으면 본점과 운송사 직원이 함께 지점을 방문해 개별 상담해주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했다.

또 “스팟세미나”란 이름으로 요청이 있는 전국 모든 지점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사후 약방문”

판매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줄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폭락에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반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나온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 14일에도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 30여 명이 우리은행을 찾아 행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투자자는 “창구 직원 말만 믿고 펀드에 가입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봤다”며 “영업점에 항의해왔지만 별 대책이 없다는 말에 본점까지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모 증권사 직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펀드에 자산의 대부분이 몰려 있어 사실상 신규 가입을 문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 근절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쓸 일은 없다”며 “지금 당장 현장 직원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년 투자자를 다독여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판매사 수수료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증권사 펀드 연구원은 “펀드 소송 등이 붓물을 이루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비싼 돈 내고 은행에서 가입해봤자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노현·박유연 기자

■ '이것만은 지키자' 전문가의 투자비법

"장기투자,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하나까."

누구나 '가치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처럼 장기투자자도 억만장자가 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주식이나 펀드에 무조건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수백%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단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 국내 투자 전문가들에게 현명한 장기투자 비법을 들어봤다.

1. 장기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일찍이 전설적인 월가의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가 "주식을 사기 전에 빚을 갚고 집을 사라"고 말했다듯이 이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꼽는 장기투자의 첫 계명이다. 김일선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일반적인 경기주기 순환에 따른 증시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초 투자목표와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펀드가 반토막나면서 "40대 가장은 아집이 두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파트 중도금이나 대출로 펀드에 투자했기 때문.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은 "덜러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갔다. 저축상품과 달리 고수익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공존하는 투자상품 비중을 높이려면 반드시 여유자금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산배분 전략부터 짜라

파이낸셜에널리스트지널(F.A.J.)에 따르면 투자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산배분'으로 나타났다. 국내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이 가계자산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자신의 투자자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행을 좇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다. 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평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4대1로 편중돼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5대5로 가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립별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강 소장의 추천 투자방법은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비중을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것. 30대 투자자라면 70%를 주식형펀드에 넣고 나머지를 채권형펀드와 중합자산관리계좌(CMA)에 나눠서 투자한다.

3. 뛰는 펀드는 오래 못간다

올해 초 '히트펀드'로 손꼽히던 러시아펀드는 11월 14일 현재 1년 수익률이 -70%인 '에플단지'로 전락했다.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집단 상품'인 파생상품펀드는 복잡한 구조가 오히려 발목을 잡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일부는 소송까지 걸려 있다. 김희곤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장기투자는 특정섹터나 테마로 한정된 펀드보다 전체 시장에서 매니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 지속 가능한 종목을 발굴하는 펀드가 적합하다"며 "실적기간이 오래된 전통 주식형펀드 중 중상위권 성적을 지속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4. 티끌모아 태산된다 했거늘

연 2%가 10년간 쌓이면 복리로 21.9%에 달한다. 장기투자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펀드보수나 세제혜택 등 비용절감 방법에 무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김일선 상무는 "미미한 비용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 격차를 초래한다"며 "펀드성격이나 투자전략이 비슷하다면 보수가 낮은 펀드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5. 제 아무리 목은 간장이 좋아해도 곰팡이는 없애야

대다수 투자자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장기투자라면 무조건 초심을 잃지 않고 길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곤 애널리스트는 "오래 목은 간장이 귀하다고 해도 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산간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창희 소장은 6개월마다 자산상황을 살펴보고자 조언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주가 상승으로 주식형펀드 비중이 60%에서 70%로 높아졌다면 10%포인트만큼 팔아 채권형펀드나 CMA로 옮기고 주가가 하락해 비중이 축소됐다면 반대로 채권형펀드나 CMA를 팔아 주식형펀드에 채워넣으면 된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여유자금으로

경기안락아도 투자목표 유지

자산배분부터

100-나이=주식형 투자 비중

뛰는펀드 조심

중상위권 성적 지속펀드 선택



증인 한국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그들은 누구

'34세 애널리스트와 경력 2년
의 펀드매니저가 좌우하는 시

장.' 시가총액 800조원의 증시와 280조원 규모의 펀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세계의 현주소다. 올해의 단어로 '반토막'이 선정돼야 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이 초토화되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우리 시장의 취약한 인력구조가 꼽힌다.

평균경력 2년차 280조 쥐락펴락?

그리고 그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국내 금융전문인력들이다.

▶관련기사 4면

증권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1386명의 조사분석담당자(애널리스트)의 평균 나이는 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인재들이 존각의 경쟁을 벌이는 증권업의 특성상, 증권 인력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젊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젊다는 지적이 많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증권의 105명 애널리스트의 평균 나이는 33세다. 대우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다른 대형사들도 마찬가지다. 굿모닝신한증권 리서치센터의 평균 연령이 36세일 정도다.

다수의 국민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는 펀드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운용' 인력, 즉 펀드매니저의 수는 총 1002명이다. 지난해 말 815명이던 운용인력의 수는 올 들어 25% 가까이 늘어나면서 1000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공모펀드시장이 280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평

34

애널리스트 평균 나이

36.6

펀드매니저 평균 나이

1

경력 1년미만
펀드매니저 60%

균 한 명의 매니저가 2800억원가량의 자금을 운용하는 셈이다.

연령대로 보자면 펀드매니저의 평균 나이는 36.6세다. 40세 이상이 24%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인 연령대의 분포가 애널리스트보다는 낮다. 하지만 문제는 연령보다는 경력이다. 국내 전체 펀드매니저들의 평균 경력은 2.08년에 불과하다. 전체 펀드매니저의 60% 이상은 펀드를 운용한 경력이 1년 미만이다.

물론 젊은 애널리스트라고 시장을 잘 못보거나, 젊은 매니저라고 터무니 없는 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별로 운용과 리서치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베테랑 리서치센터장이나 운용본부장이 있다.

하지만 결국 책임지는 것은 담당인 젊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라면 경험부족은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002명 가운데 IMF나 카드채 사태 등 시장의 위기를 겪어본 10년 이상 경력의 펀드매니저가 4명에 불과한 현실을 최근 펀드수의 폭 급락과 연계시키는 시각도 있다.

허연희·홍승원 기자/swan@heraldm.com

환란경험 펀드매니저

1002명중 4명뿐

위기 대처능력 의문

‘상박하후’ 기형구조... 40세만 돼도 ‘퇴직압박’

〈上海下庫〉



증인 한국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현주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양대 축인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본지가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는 전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평균 나이와 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쥘다’다. 물론 젊다고 기업분석을 잘 못하고, 펀드 운용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다 보니 현재와 같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장세에 있어서 적절하고 민첩한 대처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다.

몸값 올리기 집착 1년새 무려 5~6번 이직
비정상적 장세선 민첩한 대처 미흡 지적도
내년 자통법 시행엔 증권사 인력난 불보듯

실제로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일부 애널리스트는 본업인 기업분석에 있어 명확한 데이터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세 전망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공식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취득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도 나온다.

펀드매니저 역시 경력이 짧은 관계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펀드 운용을 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갑(甲)과 을(乙)’의 관계다. 당연히 애널리스트는 펀드매니저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 주식 관련 정보와 함께 기업분석 자료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이 과정에서 펀드매니저는 나이가 많은 애널리스트와 만나는 것을 꺼린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영업전선에서 갑인 펀드매니저가 젊은 애널리스트를 선호하다 보니 리서치센터는 젊은 애널리스트 위주로 라인업을 짜는 성향이 생겼다.

여기에 리서치센터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애널리스트를 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후배를 계속 양성해 미래의 애널리스트를 키워야 하는데, 애널리스트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그저 외부 경력자를 빼오기 바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널리스트의 몸값만 천정부지로 올랐고, 1년 새 5~6번씩 회사를 옮겨 다니는 애널리스트까지 생겼을 정도다.

A리서치센터장은 “후배 애널리스트를 키우기 위해 증권사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되면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 기능이 확대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준비하는 증권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 조로(跳槽)현상도 심각하다.

상박하후(上落下庫)의 연령구조로 돼 있는 리서치센터에서 40세만 돼도 현장에서 물러날 때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 보니 애널리스트는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증권사는 더 더욱 새 인력 채용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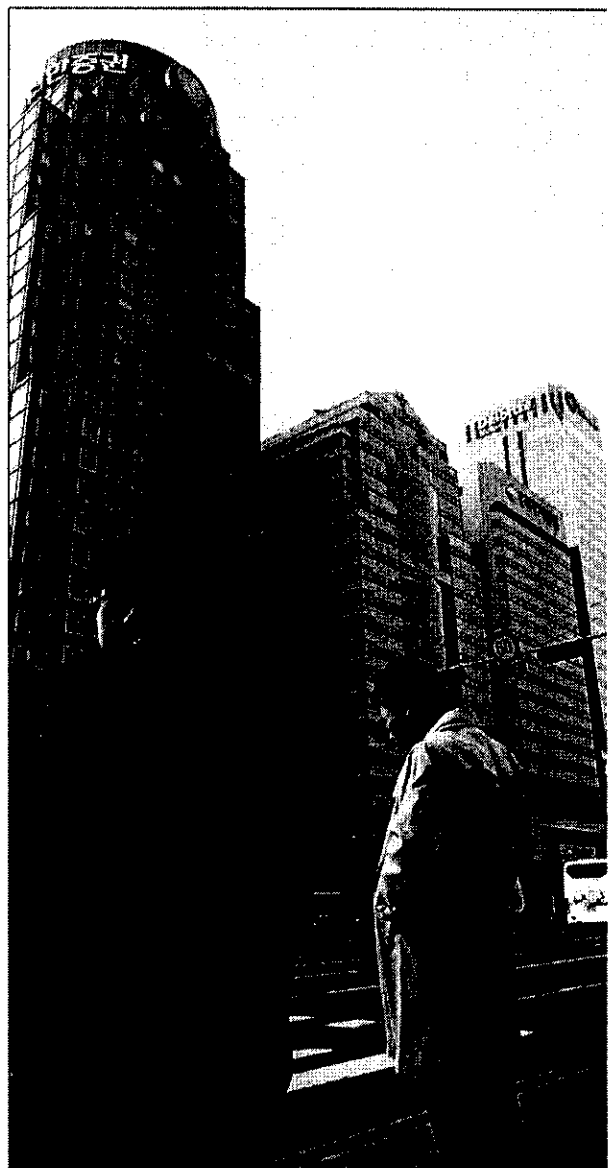
나이가 젊고 경력이 짧다 보니 일부 애널리스트는 제대로 된 기업분석을 하기보다 시장이 요구하는 분석보고서만 작성하거나, 펀드매니저와의 관계에만 열을 올리기도 한다.

B리서치센터장은 “하루 종일 펀드매니저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돌리고, 점심 저녁으로 만나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B리서치센터장은 필요악이기는 하지만 베스트 애널리스트 풀(POLL) 제도(펀드매니저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휘둘리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인 신성호 한국증권업협회 상무는 “애널리스트 중 고참급에게는 야구에서 하등 풀러임 코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지속적인 리서치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리서치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연희 기자/okdoki@herald.com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젊고 경력이 짧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주를 잡고 있다. 헤럴드경제 조사 결과 애널리스트의 평균 연령은 34세, 펀드매니저의 평균 경력은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훈 기자/rosecake@herald.com

증권업협회 등록인원 상위 10개사 사별 조사 분석 담당자 평균 나이

	회사명	등록인원	평균나이
1	삼성증권	105명	33세
2	대우증권	84명	33세
3	대신증권	73명	33세
4	동양증권	69명	34세
5	우리투자증권	68명	33세
6	현대증권	64명	35세
7	하나투자증권	58명	33세
8	한국투자증권	55명	35세
9	국민투자증권	49명	35세
10	한화증권	48명	33세

연도별 운용 전문인력 펀드매니저 추이

연도	인원
2001. 12	379
2002. 12	507
2003. 12	567
2004. 12	630
2005. 12	653
2006. 12	776
2007. 12	815
2008. 9월	1,002

※ 자산운용협회 등록 기준

타사 고참애널 기업분석 베끼기도

실제 분석·운용 사례

외국어만 잘해도 해외펀드 담당... 설익은 인력 대거 투입

금융시장에서 '젊다'는 것은 꼭 지탄받을 일만은 아니다. 경제와 기업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세계에서 젊음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창의적 접근의 동의어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젊음의 짝'이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고객의 자금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전문지식과 소양, 간접 경험 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젊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피해로, 금융회사에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일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펀드를 망가뜨린 매니저가 소리없이 회사를 옮기거나, 애널리스트가 정확한 기업판단보다는 기관투자자나 투신권 등을 상대

로 한 '영업'에만 치중하는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에만 방점을 둔 국내 금융회사가 이런 상황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한 대형 운용사의 경우 지난해 해외 사업 지원 인력으로 뽑은 20대 후반의 여성을 해외펀드 운용 담당자에 임명했다. 전임자가 이직하고 나서 생긴 공백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단지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 외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여성 매니저에게는 속칭 '운전면허증'이라 불리는 자산운용사 자격증이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관심있는 대학생도 취업을 위해 따는 수준에 불과하다.

모 외국계 합자운용사에서는 마케팅 관련 인력으로 뽑은 20대 여성을 운용 관련 파트로 전속시키는 여부를 놓고 한국인 간부와 외국인 간부가

거세게 다투어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젊은 애널리스트가 타 회사 고참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기업분석 리포트를 베끼는 일도 적지 않다. 국민이 이쯤만 들으면 알 만한 증권·운용회사에는 능력보다는 오너와의 인연에 힘입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로 자리잡은 '설익은' 인력이 대거 자리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한 해에도 몇 백명에 달하는 펀드매니저가 새로 시장에 유입되었다가 퇴출되거나, 스스로 떠난다. 자산운용협회 공시에 따르면 아직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11월 들어서만 펀드의 담당 매니저가 바뀌었다는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가 무려 332건 이뤄졌다.

이런 불협화음의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 책임자 없는 펀드의 수익률은 그만큼 망가지기 쉽고, 수익원에 달하는 젊은 애널리스트의 몸값은 결국 고객에게 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승원 기자/swan@heraldm.com

美·英선 10년이상 베테랑이 시장분석

해외 사례는

증권사 많아야 3~4개 펀드운용...한국 수천개 설정과 대조

경력이 짧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주를 이루는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유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최소 10년 이상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이 연속성을 갖고 펀드를 운용하고 주식시장을 분석한다.

한 외국계 운용사 관계자는 "20년 넘게 한 펀드매니저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펀드 운용에 나선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천개가 설정되는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한 회사가 많아야 3, 4개의 펀드만을 운용한다.

국내에는 펀드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2~3년차의 주니어그룹이 포트

폴리오 매니저로 등록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해외 펀드는 전적으로 최고투자담당임원(CIO) 등 시니어그룹이 매니저로 등록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주니어 매니저는 시니어 매니저가 은퇴하기 전까지 줄곧 '서포터'로서 활동하며 경험을 쌓다가 자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외국계 경험이 있는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펀드 운용에 문제가 생겨도 매니저를 교체하기보다는 펀드 구조를 재조정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고 전했다.

일례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에셋 매니지먼트 회장은 집순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직접 이머징마켓의 수석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며 국내

젊은 매니저와 경쟁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선진국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업계에 진입한 이가 많다. 증시 전체를 아우르는 리포트를 짧은 애널리스트가 쓰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글로벌 증권사의 경우 아시아 남미 중동 등으로 지역을 나눠 관할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 위주로 분석하는 국내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한다.

김수미 UBS증권 이사는 "UBS에는 50세가 넘었지만 현역 이코노미스트로 활발한 리포트를 내는 이도 있다"며 "특히 중요한 투자전략은 리서치센터장만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unipan@heraldm.com

현명한 장기투자 문화

③ 투자·판매·운동 해법찾기

중국 고물이 터졌다.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일명 '반토막펀드'가 속출하면서 '투자자의 몸치마 투자' 판매사와 불완전판매' '운동사의 마숙한 펀드운동' 등 펀드시장의 고물이 터진 것이다. 최근에는 투자자-판매사-운동사간 이해상충으로 펀드 소송이 잇따르면서 '펀드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고물을 깨듯이 짜내면 상처는 아물고 더 아무진 새살이 돋는 법. 오히려 드러난 문제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다. 위기에 봉착한 펀드시장은 투자자, 판매사, 운동사가 서로의 고충과 문제점에 귀 기울인다면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몸치마 투자

마숙한 운동

불완전 판매

환부 도려내야 새살 돋는다

◇투자자 "펀드는 너무 어려워"

"속터지죠. 정기적금 계고 400만원을 넣고 맡겼는데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으니 펀드를 사람 있겠어요. 남들 하나까 따라한 것도 후회돼요. 펀드를 조금만 알았더라도..."

지난해 9월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최영철씨(35)는 "소중한 국민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 운용하지 못한 펀드판매사나 운용사 모두 패싹하지만 시장분위기에 편승해 아무생각 없이 펀드에 투자한 내 자신도 원망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생각은 최씨만이 아니다. 초보투자자들라면 대부분 비슷한 후회를 한다.

하지만 점차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고 그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펀드상담이나 가입시 상품설명서나 투자설명서를 나눠주지만 초보투자자가 이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다. 초보투자자 중 "판매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 심지어 은행 등 판매사 직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들어 문제가 된 불완전판매도 여기서 연유한다. 주가연계펀드(BLF)에 투자해 원금의 60% 이상 손해 봤다는 김규생씨(34)는 "중시가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판매사 직원의 설명만 믿었다"며 "투자설명서가 이해하기 쉽고, 투자 위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됐다면 투자를 한번쯤 고민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펀드보수와 수수료에 불만도 많다. 판매사의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당국은 펀드 판매보수체계를 기존 정률제 방식에서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가 낮아지는 스텝다운 방식(이연판매보수)으로 바꿀 계획이다.

◇운용사 "펀드 양산 지체해야"
펀드소송 등 일련의 사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단연 자산운용업체다. IMF 외환위기, 정보기술(IT) 거품, 카드사태 등 격랑을 거치면서 어렵게 살아올린 펀드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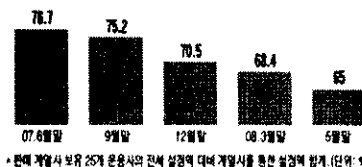
그만큼 자사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에서는 "트렌드나 인기에 영합해 펀드를 대거 양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펀드 주요 활용 주요 방안

장기투자 실적 제고책 · 배지연금 가입 의무화 · 운용규제 완화
· 불완전판매의 외부 위탁운용 확대 · 시장 질서 구축, 투자자 심리확보

계열사별 펀드판매 비중 추이 (자료: 증권연구원, 자산운용협회)



· 판매 계열사 보유 25개 운용사의 판매 실적에 대해 계열사별 펀드 판매 비중을 집계한 것. (단위: %)

현재 은행 등 펀드판매사 직원은 30시간의 교육과 간단한 시험만으로도 펀드판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 직원이면 누구나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판매사 교육시스템만 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며 "정 부당국과 업계가 힘을 합쳐 펀드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펀드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징계 등 '업계 감싸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운용사나 판매사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펀드판매사 은행들의 한계

펀드의 최대 판매처인 은행은 펀드판매보수와 수수료의 정당성을 항변하기도 한다.

적립식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은 대략 몇만원의 펀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별도의 펀드가입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으로 상담하는 곳도 있지만 적립식펀드의 경우 실제로 일반창구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적립식펀드의 비중은 22% 정도지만 전체 계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한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적

투자자 "펀드 어려워"

운용사 "너무 많아"

판매사 "수수료 적당"

"판매직원도 잘 몰라"
무턱대고 가입 후회

대거 양산 문제만 키워
이제는 시스템 개선을

적립식 계좌수 급증
상담 인력등 역부족

는 일종의 자이언티에 넘친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이사는 "솔직히 최근 3년간 장기호황 속에서 업계는 '행복기마냥 뛰어났다'는 표현이 적당할 만큼 많은 펀드를 쏟아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집에 판매구조와 펀드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펀드판매는 전국 지점망을 갖춘 몇몇 대형 은행과 증권사에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소수 판매사가 펀드시장을 과점하면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에 판매체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판매사 직원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펀드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립식펀드 판매계좌수의 75% 비중을 차지한다.

은행 입장에서선 자동화기기 업무체계 확대로 일선 창구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 시간 동안 펀드상담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판매 이후 최근과 같은 펀드수익률 급락 상황이 됐을 때 고객의 불만은 운용사보다 판매사(은행)에 집중된다는 사실도 은행으로서의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하지만 저축상품(예금 등)에서 투자상품(펀드 등)으로 재테크가 옮겨가면서 은행은 예대미진에서 탈피해 펀드판매 수수료로 취약한 주요 수익기반을 메우는 것도 사실이다.

증권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판매수수료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매사가 가격 및 수익률 등과 무관하게 계열사 펀드를 추천한다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된 우리CS운용의 펀드도 판매창구는 주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였다.

협찬: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협회, 신한금융투자, KB자산운용

배성만·임상연 기자 baesm@

펀드수수료 '고통분담' 해법찾기 <하>

펀드수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판매보수가 지나치게 높고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투자자들이 이익을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투자원금을 계속 까먹는데 무슨 염치로 수수료를 받아가느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기간 길어질수록 판매보수 더 낮게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로 전환해야
=현재 펀드투자자들은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다. 판매보수는 일정비율로 펀드자산에서 각출하는 방식인 반면 판매수수료는 일회성으로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사(은행·자산운용사 등)는 펀드를 판매할 때 외에는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판매보수를 폐지하고 판매수수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판매가 일회성에 그치는 만큼 1회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판매보수를 폐지하고 판매수수료로 전환하면 몇 가지 문제점도 예상된다. 우선 판매사들이 펀드 '갈아타기'를 유도할 공인이 크다. 새로운 펀드에 계속 가입해야만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펀드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펀드수수료는 가입시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보수보다 펀드가입을 유도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펀드시장의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위축될 수 있다.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판매보수를 할인하는(CDSC)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판매서비스의 효용은 시간이 지나면 체감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에 따른 가격 차별화 필요 = 제공받는 서비스와 지급하는 수수료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아예 1%의 수수료를 낸다면

펀드 수수료 개선방안

펀드 수수료 개선방안	
지나치게 높은 보수율서비스는 1회성, 계속되는 보수 수취	· 판매수수료로 전환 → 갈아타기 권유 막을 보험장치 필요 · 서비스에 따른 판매보수 차등화 → 내년 2월 시행예정 · 투자기간에 따른 할인(CDSC) 도입 → 자산운용업체 도입 논의중
펀드 수익률에 관계 없어 일정비율 수취	·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 → 장기투자 문화 제해 하기 위해 상여한선 설정. · 자문법 시행시 가능

별다른 관리 안하면서도 매년 판매보수 부과 서비스 따른 가격차별·성과연동 등 개선필요

0.25%포인트는 계좌유지비용, 0.5%포인트는 판매비용, 나머지는 운용보고서 비용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해지고 가격경쟁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비스내역과 이에 따른 보수를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전산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검토=펀드수익률에 따라 운용보수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안도 현행 펀드수수료체계의 대안으로 꼽힌다. 성과연동형 보수체계가 도입되면 펀드매니저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 계산이 깔려 있다.

반대로 펀드수익률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운용보수도 낮아지게 돼 투자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셈이다.

물론 성과연동형 보수체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산운용업체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돼 시장예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본 운용보수를 정해놓고 일정범위에서 수익률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수수료체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전제만 성립된다면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명호 기자 mhsuh@

“JP모간의 하나지주 보고서 문제있다”

금감원, JP모간에 주의

금융감독국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나 시중의 악성투머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최근 시장 상황이 조그만 소문이나 보고서 내용에도 크게 출렁일 만큼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JP모간증권이 하나금융지주의 종목 분석을 중단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주

목하고 해당 증권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주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6일 “최근 시중에 루머도 많고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하나지주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JP모간 측에 비공식적으로 주의 경고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지주의 경우 각종 건전성 지표에 비해 최근 주가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고정 이하 비율이 아닌 요주의 이하 비율을 무수익여신(NPL) 비

율로 삼은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JP모간이 곧 자체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JP모간증권은 지난 2일 하나지주의 목표가를 종전 4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낮추면서 하나지주의 NPL 비율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아닌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을 NPL 비율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기사 A5면

임성현 기자

연말엔 역시 배당주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는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 배당수익률은 2005년 중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서면서 2%를 밑돌았고 지난해 말에도 1.5%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하락장이 지속된 올해에는 배당수익률이 2.7%(14일 기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사이에 최고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변동성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 장세에서 배당주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큰 변동없이 꾸준히 배당이 이뤄졌던 기업이나 업황이 안정적인 기업을 뽑아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면 배당주가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006년 초에 비해 인덱스 펀드 설정액이 5배 이상 증가했고 상장지수펀드(ETF) 차익거래 순유입에 대한 기대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환율 급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 외 손실이 크게 증가했고 향후 경기 불안감에 대한 우려로 현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배당주에서도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조승빈 대우증권 연구원은 “12월 결산 법인의 올해 결산배당 규모는 2007년에 비해 22% 감소하는 등 기업들이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무림페이퍼, 금호석유, KT&G 등 최근 2년간 배당을 실시한 종목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2008년 연간 순이익과 4분기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점환 기자

과도한 기준적용 부실비율 부풀렸다

지난 10일 JP모간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을 중단했다. 가뜰이나 자금 사정에 대한 시중의 악소문에 휘청이던 하나지주 주가는 불과 나흘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14일 주가는 1만4550원으로, 2001년 지주사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태산엘시디와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2000억여 원의 평가손실로 3분기 실적에서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하나지주의 체력이 크게 약화된 탓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허물어질 정도로 하나지주 펀더멘털이 취약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표주가가도 4만원→1만8000원으로 JP모간 “정보접근 막은건 큰 문제”

JP모간 측은 “종목 보고서 중단 본질은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이 차단됐다는 데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그렇게 볼 것도 아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위락파락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계 종목 보고서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지주 주가는 최근 나흘 만에 39.37% 하락해 금융주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JP모간 증권이 종목 보고서를 내면서부터다. 보고서 골자는 “중소기업 무수익 여신(NPL) 비율이 전 분기 3.75%에서 3분기 4.76%로 상승했다”며 “하나지주가 과도한 부채 증가로 자산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JP모간은 이를 토대로 하나지주 주당 목표가를 지난 7월 4만원에서 이날 1만8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때 JP모간 측이 언급한 NPL 비율은 ‘여신의이하 여신비율’이다. 통상적으로 NPL 비율을 나타내는 기준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다. 하나지주의 3분기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68%다.

JP모간이 하나지주에 대해서만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키코(KIKO)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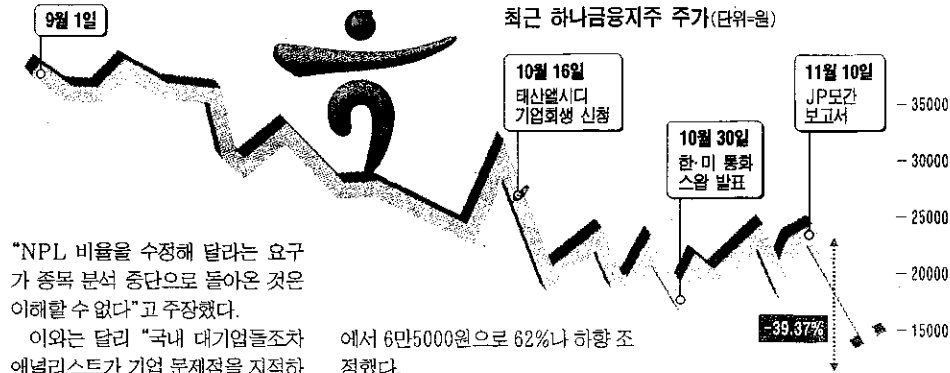
하나지주는 즉각 수정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업 분석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지난 10일 JP모간증권은 “하나지주에 대한 기업 분석을 종료한다. 하나지주가 최근 투자자 설명회 등 정보 접근을 제한해 기업을 독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하나지주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떨어지기 시작하던 지난 14일에는 1만4550원으로 주저앉았다. JP모간이 기업 분석을 중단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하나지주의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JP모간 리서치 측과 마찰이 외국인 순매도를 부추겨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JP모간 측은 정보 접근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모든 정보는 모든 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NPL 비율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종목 분석 중단으로 돌아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국내 대기업들조차 애널리스트가 기업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업 탐방을 막고, 심지어 협박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라는 견해도 있다.

JP모간은 하나지주에만 NPL 비율을 여신의이하 여신비율로 적용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지주는 태산엘시디 건과의 파생상품 거래로 이미 수천억 원의 평가손실이 난 상황인 데다 향후 환율 등락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JP모간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하나지주에 대해 기존에 발간한 모든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JP모간의 리서치센터는 항상 독립적이고 기업분석 대상 회사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하나지주와 JP모간증권 간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지만 불과 나흘 만에 하나지주 주가를 30% 이상 끌어내린 데는 JP모간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외국계의 석연찮은 보고서에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JP모간은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를 기존 17만1000원

에서 6만5000원으로 62%나 하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도 ‘투자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깎아내렸다. 20일 미래에셋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JP모간은 글로벌 증시 불안에 따른 펀드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물론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인사이트 펀드’ 수익률이 -50%로 급락하는 등 흔들리던 미래에셋이었지만 갑자기 목표주가를 반 토막낸 데 대한 이유 치고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JP모간은 LG전자 3분기 순익 전망을 적자로 추정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오히려 LG전자는 34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종 목표주가를 불과 두 달 만에 35~45%로 낮춰 주가 하락을 불러왔지만 그 배경에 외국인 대차거래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임성현·이소아 기자

매 일 정 제

코스피 박스권 못뚫는 이유는...

매일경제

1100~1200 매물비중 43%
단기반등 부담-모멘텀 부재

코스피지수 1100대의 매물 부담이 커 증시의 박스권 상향 돌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10월 이후 전 주말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매물대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지수 1100~1200 구간의 비중이 42.7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코스피지수가 머물러 있는 1100~1150 구간의 매물 비중만 전체 거래대금의 27.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나라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달 초 단기 반등에 따른 부담감이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며

서 당장 1100~1150선에 걸쳐 있는 1차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원상필 동양증권증권 연구원은 "매매 비중이 부쩍 늘어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현 지수대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0월 이후 개인들은 1100~1200선 사이에서만 1조2173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같은 기간 순매수한 전체 금액(3조2743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매수세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기금도 코스피지수 1000선 아래에서는 1조1823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1000선을 회복한 이후에는 매수 규모를 부쩍 줄이고 있다.

김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하루 거래량 100주 미만 종목 속출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거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영풍제지는 11월 들어 14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이 15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면방적 업체인 전방(80주)과 조흥(88주), 신영외교루(89주) 등도 하루 평균 거래량도 100주에 미치지 못했으며 코스닥 상장사인 서주관광개발(45주)과 네티션닷컴(58주) 역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네티션닷컴은 14일 거래가 단 3주 이뤄졌음에도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0.8% 하락해 주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량은 종목 실적,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최근 투자자들이 시장을 등지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시장이 사상 최대 활황을 누렸던 지난해 일별 주식 거래량은 7억주에 달했으며 거래대금도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14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억4046만주와 5조684억원으로 작년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난 상태다.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A21면

최근 일주일 거래량 100주 미만 종목

(단위=주)

종 목	일평균 거래량
영풍제지	15
서주관광개발	45
네티션닷컴	58
전방	80
조흥	88
신영외교루	89

* 자료=증권선물거래소, 에프엔가이드

증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염려로 지수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데다 증시 거래 규모가 줄면서 프로그램과 외국인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약화되면서 투신의 자금집행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아 기자

3분기 '실적쇼크' 기업 늘었다

247사중 82사 이익 급감...환율상승에 소비둔화 겹쳐

미국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등 소비와 고용이 얼어붙는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기업의 이익전망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지난주까지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발표를 마감한 결과 '실적 충격'(earnings shock)을 안겨준 기업 숫자가 호실적(earnings surprise)을 올린 기업 숫자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실적 충격 예년보다 심해져

16일 매일경제신문과 현대증권이 3분기 실적추정치가 나왔던 기업 247개 종목을 기반으로 실제 실적과 비교한 결과 어닝쇼크가 82종목, 어닝서프라이즈가 50종목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비 어닝쇼크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각각 36.8%대22.4%로 2005년부터 3년간 3분기 평균 비율이 25.6%대19.2%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 충격이 더 컸던 셈이다.

특히 코스피200 종목을 조사한 결과도 102개 종목 중에서 어닝쇼크가 38개, 어닝서프라이즈가 18개로 집계돼 실적 충격의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실적발표 일주일 전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2004년 이후 실적(순이익)의 평균과 표준편차값 구간 사이에서 추정치 대비 괴리율을 조사한 것이다.

실적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일주일 전 숫자와 괴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 악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또 예상외로 손실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기업 중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예상 범위에 놓였으나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충격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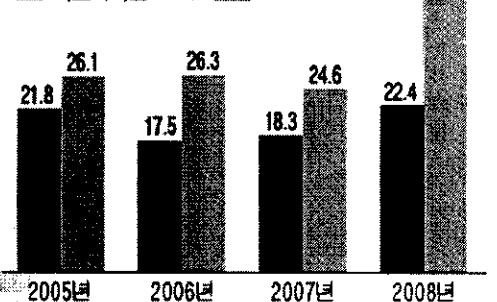
한국전력과 대덕GDS가 괴리를 측면에서 순이익의 급감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고 환율이 급변하면서 타격을 입은 한화석유화학 고려아



3분기 실적쇼크 급증 (단위=%)

■ 서프라이즈 ■ 쇼크



*실적발표 일주일 전 추정치 기준 괴리율로 계산. 자료=현대증권

연 두산인프라코어 한진해운도 순이익 쇼크가 컸다.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으나 순이익은 충격을 안겨줬고,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도 순이익이 급감해 쇼크를 안겨줬다. 하이닉스반도체와 LG전자도 순이익 급감을 피할 수 없었다.

김기형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3분기와 4분기에 계절적 영향으로 실적 충격이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분기에도 실적 충격 비율이 높았고 3분기는 실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4분기 실적 충격심화될 가능성 높아

최근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앞으로 이익 하향조정 속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증권 집계에 따르면 연간 실적이 완성되는 4분기의 경우 어닝쇼크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2005년 44.3%대24.1%, 2006년 50.2%대18.8%, 2007년 48.5%대16.3%였다.

한국과 미국, 중국의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EPS)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하향조정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이기봉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전망도 가파르게 하향조정되고 있다"

고 말했다.

◆내년 실적도 금융위기 여파로 '글썸'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익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른 순이익 조정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과 유가 변수의 변화에 따라 전력가업종 이익이 다소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IT업종은 글로벌 수요둔화 영향으로 급격히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분석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올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2%, 7.8% 늘어나지만 순이익은 14.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정보제공업체 예프앤가이드의 500대 기업 실적 컨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2009년 상장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5.3%, 4.4%, 2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한나 기자

용어

어닝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 어닝쇼크(earnings shock): 발표 실적이 시장 전망 평균치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어닝서프라이즈는 기대 이상의 '깜짝 실적'을 뜻하며 어닝쇼크는 기대 이하 실적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투자 외국인도 “셀 코리아”

CRMC·싱가포르투자청·맥쿼리 등 보유지분 매각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확보와 국내 경기 둔화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들의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자 이름이 높은 기업들의 지분 매각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지분 매도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해외 본사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처럼 유동성이 확보되는 시장에서 일단 매도에 나서고 본다는 것. 여기에는 불안한 환율 움직임도 한몫했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큰손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금융·건설 업종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유동성 확보 차원 외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셀 코리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유동성 확보 때문

외국인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금액은 코스피시장에서만 34조4744억원에 달했다. 지수와 환율이 급변동을 이어갔던 지난달에는 한 달 새 4조6000억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조146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인 순매도가 해지펀드 등 단기자금에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장기투자들 원칙으로 하는 투자자들까지 매도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 관련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등을 비롯한 금융위기 여파로 장기투자 펀드들 역시 유동성 확보에 비상히 걸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 관련 4대 펀드에서는 지난 6-12월 2억9400만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캐피털그룹 계열로 대표적인 장기투자 펀드사인 캐피털리서치앤드매니지먼트(CRMC)는 지난 10월 이후 9개 기업의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

CRMC가 지분을 축소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이 염려되는 은행·건설주가 주를 이뤘다.

일례로 이 기간에 CRMC가 가장 지분을 많이 줄인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된 제이브이엔. 이 회사는 9월 말 현재 파생상품 손실 누계액이 928억원(자기자본 대비 121%)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한라건설 대구은행도 지분을 축소했다.

◆금융·건설주 매도 많아

최근 들어 공격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일명 ‘장하성펀드’·KCGF)는 벽산건설 보유 주식 지분율을 5.4%에서 4.08%로 낮췄다.

장하성펀드 측은 “벽산건설에 대한 지분 매각은 회사의 경영 개선이 본래 목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서 손을 떼는 차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영국계 투자회사인 슬로안로빈슨은 7.9% 갖고 있던 대우자동차판매 보유 지분을 4.02%로 크게 낮췄다.

맥쿼리은행은 5.03% 갖고 있던 중앙건설 주식을 모두 팔았고, 성지건설 주식 지분율도 7.8%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또 기업 유동성 확보에 대한 염려가 불거진 한화그룹도 매도 리스트에 올랐다. 노르웨이 국적의 노디스뱅크 코리아는 한화증권 보유 지분율을 5.20%에서 4.14%로 낮췄고, 티로우프라이스인타내셔널은 5.30% 갖고 있던 한화손해보험을 1.4%가량 팔았다.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싱가포르투자청도 하나투어는 6.24%에서 5.13%로, 케이프는 5.26%에서 4.72%로 지분율을 낮췄다.

JP모건 계열 JF애셋매니지먼트는 태산엘씨디 기업회생 신청 등으로 염려가 커진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10월 이후 주요 외국계 투자자 지분 변동 (단위 = %포인트)

해외 투자자	기업	지분변동
맥쿼리은행	중앙건설	-5.03
맥쿼리은행	성지건설	-5
CRMC	제이브이엔*	-7.2
CRMC	삼성엔지니어링	-1.42
싱가포르투자청	하나투어	-1.11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	벽산건설	-1.32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	하이트맥주	1.21
JF애셋매니지먼트	나이스정보통신*	1.06
CRMC	부산은행	-1.54
CRMC	대구은행	-1.71
싱가포르투자청	케이프*	-0.54
CRMC	S&T홀딩스	-2.43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	하이트홀딩스	-1.28
CRMC	한라건설	-2.83
라자드애셋매니지먼트	웅진코웨이	-1.06
CRMC	신타*	-1.0
JF애셋매니지먼트	우리투자증권	0.23
JF애셋매니지먼트	대림산업	0.34
JF애셋매니지먼트	강원랜드	0.38
JF애셋매니지먼트	하나금융지주	-2.83

*는 코스닥 기업. 자료=금융감독 전자공시

2.83%포인트 축소해 지분율을 3.33%로 내렸다. 그러나 지분을 늘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라자드애셋은 대한화섬, 하이트맥주, 에스에프에이, 크라운제과를 사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JF애셋매니지먼트는 나이스정보통신, 대림산업, 강원랜드 등의 지분을 사들였다. 김대원 기자

‘3無’ 코스닥

스타주·기관매수·투자매력 없어

시총도 삼성전자의 71% 수준

개인들조차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로 물리면서 코스닥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000곳이 넘는 코스닥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올해 삼성전자 한 곳보다도 낮아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스타 종목이 사라지면서 매수 주체가 실종됐고 투자매력도 떨어지는 ‘3무(無)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49조818억원으로 연초 100조2950억원에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삼성전자 시총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이달 유가증권시장으로 떠날 예정인 NHN(시총 6조1362억원)을 빼면 40조원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해 2조~3조원에 달했던 하루 거래대금은 10월 이후엔 1조원에도 못미친다.

이 같은 위기는 스타주 매수세력 수익성 등 시장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사라진 ‘3무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올해 LG텔레콤 아시아나항공 한국선재 부국철거에 이어 NHN마저 코스닥 이탈을 결의하면서 스타주가 실종됐다. NHN이 떠나면 코스닥 ‘1조 클럽’은 SK브로드밴드 태웅 메가스터디 등 3곳뿐이다. 반면 961곳이 시총 1000억원 미만이고 200곳은 100억원도 되지 않는다.

코스닥을 받치던 개인들마저 스타주와 함께 시장을 등지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저로 추락하면서 대부분 코스닥 투자로 큰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0@hankyung.com

장기주택펀드, 소득공제로만 연7% 수익 효과

(연봉 4000만원 근로자)



같이 입사한 동기와 급여도 같고 둘 다 미혼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항상 적다.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가?

직장생활 5년차인 고모(32) 씨는 '13개월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때마다 입사동기보다 적게 받는 이유가 궁금했다. 필자가 급여생활자들의 필수 가입상품으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를 설명해 주니 고 씨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 씨가 같은 조건의 입사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세테크용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펀드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식펀드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200만 원까지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이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3년간 약 7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장마펀드는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 생활자들에게 최고의 효자상품으로 통한다.

5년 이내에 환매하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의 4%, 1년 이내에 환매하면 8%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해지 가산세가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다.

장마펀드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연간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월 62만 5000원씩(연 750만 원) 납입하면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소득세율 18.7%)의 근로자가 장마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해도 펀드 수익 외에 아무런 위험 없이 약 7%의 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후대비용 필수 상품으로는 연금펀드가 있다.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면 연간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펀드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이외에 기타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

주요 세제혜택 펀드

구분	펀드	수익률(%)		
		1년	3년	5년
장마펀드 (혼합형)	프런티어장기주택 마련혼합1	-11.5	6.9	24.7
	미래에셋장기주택 마련혼합1	-9.7	6.5	34.9
	삼성장기주택마련 혼합1	-16.9	4.9	30.6
연금펀드 (주식형)	하나UBS인베스트 연금주식S-1	-44.3	2.7	56.5
	한국골드플레이연금 주식1	-41.7	-23.4	30.5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주식1	-38.7		

14일 기준.

자료: 펀드존

리해서 가입하기보다,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마펀드와 연금펀드는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주식형을 택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울산지점 차장('말기아빠의 펀드재테크' 저자)

정리=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10대증권사 영업이익 66% 줄어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2008년 상반기(4~9월) 영업이익이 부진한 증시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6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은 572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조6890억원에 비해 66.11% 줄었다. 10대 증권사들의 매출액은 12조767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7.52% 늘었지만, 순이익은 466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63.86% 줄었다. 영업이익이 가장 컸던 곳은 1300억원을 기록한 우리투자증권이지만 작년 상반기보다는 42.40% 줄었고 이어 삼성증권(1230억원), 미래에셋증권(1093억원), 굿모닝신한증권(403억원), 키움증권(364억원)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기준 상위 5위 업체였던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이 모두 2000억원을 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022면

애널리스트 불안한 인원 증가

신생증권사 충원 영향... 구조조정 본격화뎐 감원 불가피

증권시장의 하락세 속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1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조사분석담당자(애널리스트) 수는 1388명.

지난 8월 31일(1235명)과 비교해 153명(12%)이 늘었다. 총 40개 증권사 중 인원을 증원한 곳은 20개사. 14개사는 인원 변동이 없었고 6개사는 인원을 줄였다.

■신생증권사·업무량 증가 원인
국내 증시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업무가 강화된 기존 증권사들이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리서치센터 인원을 새롭게 채용했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까지 부각됐던 '향후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감도 인원 충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신생증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새롭게 리서치센터 인원을 증원한 것도 애널리스트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

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등 기존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 인원을 크게 늘렸다. 대우증권은 지난 8월 말까 62명이던 애널리스트 인원을 현재 86명까지 충원했다. 삼성증권도 80명에서 105명으로 늘렸다. 신생 증권사인 IBK증권도 8월 말 대비 연구원 인원이 12명 늘었다. LG증권은 8명에 불과했던 애널리스트 수를 15명까지 충원했다.

■다시 감축 가능성 높아...가시화는 '내년봄'

하지만 향후 이와 반대로 대량 해고의 난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증권업계에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증시 부진으로 인한 실적 저하로 신용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대단위 인원감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높은 연봉을 받는 연구원 및 수익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 인원이 '감축대상 1호'로 꼽힌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 칼바람 속에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물론 지점 직원, 각 부문 사원들까지 '살생부'에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권업계에 팽배한 상태다.

국내 A증권사 증권담당 애널리스트는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보다는 향후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각 증권사가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에 왔다"며 "하지만 최근 폭락세 후 감원설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어나가는 만큼 내년 초에는 감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국내 B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감원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시기는 내년 초쯤, 대상은 효율성 문제가 강하게 제시되는 애널리스트와 수익률 하락으로 저자로 돌아선 지점 직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lways@nnews.com | 안현덕기자



증권사별 조사분석담당자 인원증감 상위 10개 증권사 현황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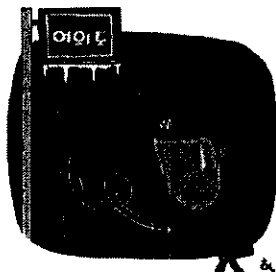
증권사	8월31일	11월14일	증감인원
교보증권	9	18	9
대신증권	62	73	11
대우증권	62	86	24
현대증권	53	64	11
NH증권	20	29	9
삼성증권	89	105	16
IBK증권	3	15	12
LG증권	8	15	7
한국투자증권	33	58	17
유진투자증권	39	44	5

자료:증권업협회

여의도 증권맨 “지금은 한겨울”

“기분이 나아 반
들반들 구두도 닦지
않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1000선을 재차 위협
받던 11월 초순. 서
울 여의도 증권가는
어느 곳보다 일찍 한
파가 몰아닥쳤다. 주
가하락으로 인원조
정과 급여삭감의 삭
풍이 휘몰아치면서
증권맨들의 겨울나
기가 어느 때보다 힘
들다. 증권선물거래



구두는 집에서 닦고
10년된 옷 고쳐입고
연말행사 잇단 취소

소 인근에서 15년째 구두수선집을 운
영하는 김모씨는 “이달 들어 손님이
40%나 줄었다”고 푸념했다. “집에서
(구두를) 닦고 다니는지, 만날 사람
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고쳐달
라는 신발들도 5-6년 된 게 대부분이
예요. IMF제제 때도 이 정도는 아니
었는데.” 반면 현옷을 고쳐 입는 사
람들로 여의도 의류수선집은 붐비고
있다. “현옷도 5-6년 된 거면 말도 안
해요. 10-20년 전 입던 옷을 갖고와서
고쳐달라고 한다니까요.” 여의도에서
17년째 의류수선집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요즘 수선물량이 많아 평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토·일요일에도 나와
재봉틀을 돌린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증권맨도 급
증했다. 여의도 한 대형증권사의 구내
식당 매니저는 “10분만 늦게 와도 식

권이 없어질 정도로
이용고객이 늘었다”
며 연초 대비 15% 정
도 증가했다고 밝혔
다. 한 증권사 애널리
스트는 “가급적 점
심약속은 사내식당
을 이용하고 간혹 저
녁약속을 잡아도 지
난해와 달리 가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말했다. 스타
벅스, 커피빈 등 고
가의 커피전문점이
줄비한 여의도에 저

가형 가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
하철 여의도역 바로 옆 꽃가게는 11월
첫째주 커피전문점으로 간판을 바꿨
다. 1800원짜리 메뉴로 4000-5000원대
스타벅스 커피를 부담스러워 하는 증
권맨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곳
점원은 “가게문을 연지 얼마 안됐지
만 다른 데보다 가격이 싸다며 손님
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유관기관들도 연말에 집중하
던 외부행사를 잇따라 취소·축소하
며 여의도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달로 예정돼 있던
창립 기념음악회와 리셉션 일정을 모
두 취소했다. 오는 19일 세종문화회
관에서 서울시향을 초청, 기념음악회
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증권가의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해 이를 취소했
다. 김미선·권해영 기자 river@

은행들 유동성 확보 적극 추진

외화조달-후순위채 발행 잇달아

유동성 악화와 자산 부실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막혀 있던 해외 자금시장에서 외화조달에 성공하거나 원화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농협은 프랑스의 협동조합금융기관인 '크레디타그리콜'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외화자금을 차입했다. 자금은 1~3개월의 단기자금으로 이달 18일부터 1년간 공급된다. 발행금리 등은 양측 간의 계약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입은 농협과 프랑스 크레디타그리콜이 협동조합 금융기관간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NH-CA 조정위원회에서 농협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농협은 이달 중으로 '클럽딜'을 통

해 5,000만유로 규모의 외화자금 차입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이달 13일 미국 와코비아은행과 일본계 은행 등 해외 코레스 은행들로부터 2억5,000만달러의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를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확보된 금액을 유산수 수입 신용장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라인 확보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해외 은행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외화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창구에서 7,400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만기는 5년6개월이며 금리 7.7%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17일부터 2주간 후순위채를 판매한다. 신한은행 후순위채는 만기 5년6개월로 금리는 연 7.7%다. 판매 한도는 7,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5,000억원 한도로 후순위채를 판매한다. 만기는 5년9개월이며 금리는 7.8%다. 이자율 매월 지급받는 대신 만기 때 한꺼번에 받을 경우 연 8.03%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들 외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연말까지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16일 브라질 헤알화 채권을 발행해 2억5,000만달러의 외화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입 조건은 만기 2년에 금리는 리보+3.95%포인트 수준이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기존 외화차입금 상환과 외화대출 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승권기자 skmoon@sed.co.kr

매일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A11면

수출입銀·농협 외화조달 성공

은행권이 외화 조달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16일 브라질에서 현지 통화(헤알화)로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방식의 외화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2억5,000만달러다. 차입 조건은 만기 2년에 금리는 영국 중앙은행 금리(Libor·리보)에 3.9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수은은 조달 외화를 기존 외화차입금 상

환과 외화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달러와 유로 등 주요 시장에서 중장기 외화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며 "브라질 현지에서 5억7,600만 헤알 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스왑시장에서 달러화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협도 외화 조달에 성공했다. 농협은 16일 프랑스 '크레디타그리콜'

에서 1억달러를 차입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두 기관간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NH-CA 조정위원회에서 크레디타그리콜 측에 외화조달을 요청했다"며 "1~3개월 단기 자금 형태로 앞으로 1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크레디타그리콜은 자본금 기준 세계 7위로 한국 농협과 비슷한 형태 금융회사다.

박유연 기자

거대조직 금융투자협 초대 회장은?

임영록 전 재경부 차관 거명... 은행협회장에 신동규씨 물망

은행연합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등 연내 새로 선임될 3개 금융관련 협회장 인선을 앞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우선 은행연합회. 유지창 현 회장의 임기는 이달 24일 만료된다. 은행연합회장은 통상적으로 21개 회원사의 은행장들이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해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특수성이 인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군에선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신 전 행장은 행시 14회 출신으로 옛 재무부·재정경제부의 대표적인 금융·국제금융통이며 추진력이 돋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남고 후배이자, MB



신동규씨



남궁훈씨



이우철씨



임영록씨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자문위원도 지냈다. 이 밖에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 등도 거론된다.

생명보험협회장은 11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남궁 훈 현 회장과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대결구도로 모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장과는 달리, 보험협회장은 정부 입김이 별로 작용하지 않아 회원사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증권관련 협회가 통합돼 금융투자협회가 발족된다. 워낙 거대협회라 초대 회장을 누가 맡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가장 강력하게 거명되는 가운데, 통합대상인 3대 협회의 현 회장(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한국선물협회장)과 박종수 우리투자증권사장 등도 거론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한 국 일 보

은행연합회장 19일 결정

신동규 前행장 부상...김경립·이인호씨도 거론

차기 은행연합회장이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 유력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경립 전 외환은행장이 여전히 가능성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인호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막판 후보군에 뛰어든 것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7개 은행 대표들이 19일 이사회를 열어 24일 총회에서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추대할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규 전 행장은 행정고시 14회 출신으로 한국은행,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1급)을 역임했다. 이후 2003년 9월부터 3년간 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신 전 행장은 은행장 출신이 적합



신동규 前행장



김경립 前행장

하다는 은행권 요구와 위기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교감이 잘 되는 관료 출신이 낫다는 정부 입장을 절충할 적정 카드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신 전 행장에 맞설 후보로는 경북 영천 출신의 김경립 전 외환은행장이 가장 유력하다. 김 전 행장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거쳐 한은 이사과 은감원 부원장보를 지냈다. 시중은행장을 두 차례 지냈다는 게 강점이다.

박유연 기자

매 일 경 제

PF대출도 이달말부터 구조조정

금융위,저축銀 M&A 유도방안 조만간 발표

정부가 이달 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실 PF사업에 대한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분류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을 정상, 부실 우려, 부실 등 3~4개로 분류해 맞춤형 처방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 관련 노하우가 있는 캠코가 부실 PF채권을 사들여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을 완화하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회생가능성이 큰 PF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출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성 있는 우량 PF 사업장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량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현재 PF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자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건설업체에 대출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6월 말 현재 30여개 사업장에 1조1000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M&A 또는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이나 우량 저축은행에 인수시키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투입 금액에 따라 저축은행의 기존 영업구역 외에 최대 5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난 9월 마쳤다. 시행령 개정 이후 새누리저축은행 중부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등 4개 부실 저축은행이 각각 한화 계열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에 인수됐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h@hankyung.com

‘키코 공포’ 다시 증폭

환율 1400원 육박하자 환손실 불안감 커져

환율이 다시 급등했다.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진정될 것 같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등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를 코앞에 두면서 키코 손실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진입하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키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최근 환율 상승세로 보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피 상장사 한세실업은 3·4분기 통화선도 및 통화옵션 손실이 215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반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1000억원)의 21.5%에 해당하는 수치다. KPX화인케미칼도 3·4분기 통화옵션 평가 및 거래손실이 자본금의 27%가 넘는 258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대호에이엘(37억원), 유엔젤(36억원), 나자인(31억원), 로케트전기(33억원) 등도 3·4분기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봤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키코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태산엘시디의 경우 3·4분기 자기자본의 88%가 넘는 6092억원의 통화옵

션 손실을 입었다.

또 제이브이엠은 3·4분기 통화옵션 손실이 자기자본의 71%인 550억원에 달하고 코다코는 자기자본의 31.4%인 108억원을 손실로 회계처리했다.

이 밖에 유나셀(66억원), 뉴인텍(30억원), 화신테크(49억원), 엔터기술(83억원), 디에스엘시디(538억원), 씨모텍(95억원), 평화정공(76억원) 등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

문제는 이 같은 3·4분기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달러당 1187.70원을 기준(2008년 9월 말)으로 한 것이라 향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키코 손실에 따른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백악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키코를 해지하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환율에서는 해지조차 임도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환율이 안정을 되찾기 힘들어 경기침체와 키코로 내년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grammi@fnnews.com | 안만호기자

매일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
A02면

10월 수출증가율

한자릿수대로 추락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되며 지난 달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344억3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 수출증가율(28.2%)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증가율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출증가율(22.7%)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용범 기자

매일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A05면

은행신용등급 '부정적'·9월위기설...

한국, 불분명한 위기론에 시달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휘청거리고 있는 국내 경제와 기업들이 설상가상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다.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흔들리던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한 장에 휘청이는가 하면 피치, S&P 등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은 앞다퉀 한국 경제의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위기론'은 '희생양'을 찾는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싸늘한 외국의 평가에 동네북이 된 지 오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불과 20여 일 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는가 하면 지난 11일 국내 은행들의 등급을 일제히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은행권의 단기외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악재가 여전하지만 정부의 외화차입 지급보증, 미국과의 통화스와이프 체결, 한국은행의 은행채 간접매입 등 전방위 대책이 시행 중인 만큼 과도한 위기 조장이란 반박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은행들의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건전성에선 최근 일련의 금융주 폭락사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자체에서 불거진 과당경쟁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국내 모 은행의 자금위기설이 그럴듯하게 나돌더니 이를 빌미로 고객 확보에 나선 다른 은행들과 '악성 투매' 경쟁이 벌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기우'로 판명났던 '9월 위기설'은 시장을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헛방'이다.

국내 채권시장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자금 중 9월 만기를 맞는 67억달러가 재투자되지 않고 썩을 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과장된 소문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국내 외환, 채권,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 여기에 한국의 총외채가 대외채권에 근접하면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세계 6위 규모 외환보유액에 대한 공격이 지속됐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 하지만 총외채는 4198억달러다.

값아야 할 돈보다 값을 수 있는 돈이 적으니 위기란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빌려줘서 언젠가 받아야 할 돈(대외채권)은 4225억달러로 여전히 총외채보다 27억달러 많다. 게다가 총외채 4198억달러 가운데 실제 빚은 2680억달러 정도라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임성현 기자

취재여록

펀드 보수인하 '눈치싸움'

"정부가 내놓고 펀드 보수를 낮추라고 하니 피할 도리가 없지만 우리 회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갈 생각입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펀드시장에서 판매회사가 '갑'인 상황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먼저 보수를 인하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찍히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들을 불러 사실상 판매 보수를 낮추라고 통보했지만, 업체들이 주저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업계에서는 펀드 보수 인하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이렇다 할 서비스없이 전체 보수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판매보수 인하에 대해서는 투자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장기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펀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들이 보수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더욱이 투자자들에게 올바르게 투자를 가이드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고객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보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판매사와 운용사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 아무도 먼저 나서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누가 고양이 목

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형국이다. 펀드판매 비중이 큰 은행은 물론 증권사들도 모두 사정이 비슷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펀드 판매보수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에서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최대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결단'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모두들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이라서 선도업체들이 총대를 메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펀드보수 인하는 금융권이 투자자의 고통을 분담해 신뢰를 회복하지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요구가 아니라 업계 자발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자칫 눈치싸움이 길어져 공연히 투자자들의 반감을 사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김태원 증권부 기자 twkim@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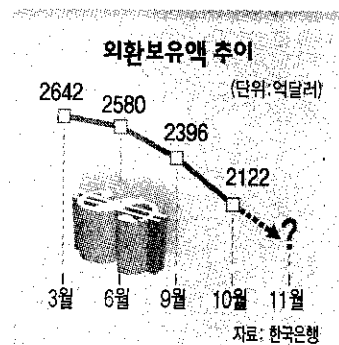
외환보유액 2천억달러선 이달말쯤 무너질듯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 기업을 위해 대규모 외화 공급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달 말이면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선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된다.

16일 한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말 2122억달러까지 떨어진 외환보유액이 이달 말 1900억 달러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매주 화요일 실시되는 경쟁입찰 방식의 스와프시장 외화 공급으로 이달 들어 4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 오는 18, 25일에도 20억달러씩 자금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해 모두 8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수출기업들에 대한 160억달러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또다시 큰 폭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한 한은의 외화 공급 100억달러와 원자재 수입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 수입유전스대금 60억달러가 주요 내용이다.

160억달러가 이달 안에 모두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금융위기 와중이던 10월 한달 동안 수출금융에서 전달에 전취 매입 외환 규모가 38억달러, 수입유전스가 14억 8천만달러 줄어들었음을 고려할 때 52억 8천만달러만큼 수요가 추



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은의 스와프시장 지원금 80억달러와 합칠 경우 이달 중 외화 수요만 13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께는 외환보유액이 1900억달러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이달 말이면 3분기(7~9월) 말 기준 대외 채권·채무 현황이 발표된다. 순대외채권은 6월 말 현재 4224억달러, 대외채무는 4197억달러로 순대외채권은 27억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9월부터 국제 금융위기가 본격화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은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공식적으로 순채무국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한겨레신문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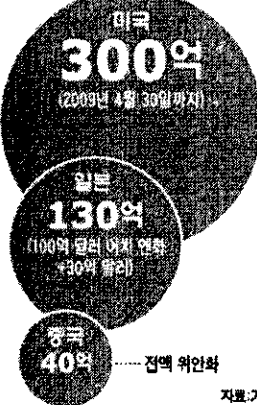
3국 재무장관 합의 - 내달 규모 확정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한도가 조만간 늘어날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쉬런 중국 재무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3국간 양자 통화스와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표현은 다소 애매하지만 중국·일본과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위한 고비를 넘겼다고 정부는 평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동 선언문이 나왔다는 것은 3국 모두 통화스와프 확대에 적극적이라는 의미"라며 "특히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확대에 처음으로 공식 합의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인 3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130억

한국이 확보한 통화스와프
단위: 달러



달러, 중국과 4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각각 최대 300억 달러씩 총 60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중·일과의 통화스와프가 확대되면 우리로선 한·미 통화스와프

에 이어 이중, 삼중의 '외화 비상금'을 갖게 된다.

정부는 또 중·일과의 통화스와프에서 평상시 쓸 수 있는 규모를 늘린다는 목표다.

지금은 통화스와프 한도의 20%만 평상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조 개혁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고 평상시 쓸 수 있는 규모를 늘리면 통화스와프의 위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12월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앞서 26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에서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대상 통화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삼철 기자

isang@joongang.co.kr

매일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
A02면

금융위·증권거래소

런던·뉴욕서 합동IR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7일 런던, 18일 뉴욕에서 '한국시장 IR(Korea Investors' Forum)'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뉴욕 I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점환 거래소 이사장도 한국 증권시장 현황과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A01면

정부 '액션플랜' 작업반 구성

오늘부터 '3國 협의' 나서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한국·영국·브라질 등 3국이 '금융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G20 액션플랜'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 17일부터 즉각 작업반을 구성해 3국 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친 뒤 직접 언론설명회를 갖고 "내년 3월 말까지 제2차 G20 정상회의에 제출되는 국제금융 변화에 대한 대책안을 한국과 영국·브라질 등 3개국 의장단이 만들고 제안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이 1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 과제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당장 월요일부터 작업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영국·브라질 등 '트로이카' 3개국 간 세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3개국 주도이기는 하지만 민간 전문가나 자문단의 참여도 필요하므로 멤버를 어떻게 구성하고 민간 부문 비중은 어떻게 둘지, 국제기구는 어떻게 참여할지 등이 모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문종훈기자 jhohn@sed.co.kr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매일경제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A23면

자기자본규제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개편 내용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증권업협회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194개사 실무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내년 1월에는 서면 점검과 전산시스템 현장 점검도 할 예정이다.

인사

◆우리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 방배선
터장 김자경

정부, 현장과 대화 늘린다

중소 지원현황 점검·금융 업종별 간담회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금융위기로 인해 건전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 현장금융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현장금융지원단은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청을 통해 수집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해 중소기업과 수출업체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금융지주, 은행 등 업종별로 27개의 정례간담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선두업체 외에 중소기업도 참가시켜 금융업종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업계가 요청하면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감독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감독자 초청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는 봉로도 마련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설된 '금융회사 의견제출란'이라는 코너를 통

금감원-금융업계 소통 강화 방안

- 업종별 27개 정례 간담회 신설
- 회의 진행 상황과 결과 공개
- 감독자 초청간담회 실시
- 금융회사 의견제출란 마련
- 연결도우미제도 시행

해 불편 사항이나 정책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과 업무협의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업무 담당자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 도우미(contact helper)'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홈페이지 부서 안내 화면에 명시된 연결 도우미에게 전화해 담당자를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하면 담당자를 찾아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위기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치 통로가 다양화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 우려가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대가로 경영간섭 조항이 포함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금감원이 주재하는 자리까지 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유연·전정용 기자

美·EU 등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커졌다

유로존 첫 동시 경기침체 등 불황 가속도
버냉키 FRB 의장 "추가 조치 준비돼있다"

전 세계 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은 공식적인 경기침체 진입을 선언했고 미국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사상 최대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합의함에 따라 각국이 추진 중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세계 각국이 공동 보조를 맞춰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깊어가는 경기침체의 굴

지난주 발표된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였다. 2분기 -0.2%를 기록한 유로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처음 공식적인 경기침체에 빠졌다.

미국도 지난달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8% 감소,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기업들의 감원 한파에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감원 바람은 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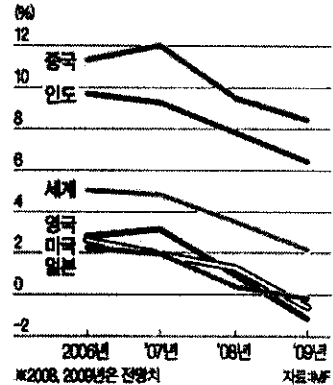
으로 확산되고 있다. 씨티그룹이 1만명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가 1700명을 추가 감원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쉐어포인트 시스템즈와 휴렛팩커드(HP)도 각각 6000명과 2만46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흔들리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국들의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태국 정부는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15%에 그치고 성장률도 4%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0%로, 내년 전망치를 5.4%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홍콩도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5%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홍콩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5.0%에서 3.0~3.5%로 낮췄다.

◆경기부양 공조

각국은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경제 성장률 추이



인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대 1000억달러(약 139조원)의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이다. 독일은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놔고, 영국은 오는 24일 추가 감세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국이 금리인하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주말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6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FRB는 지난 달 기준금리를 연 1.0%로 내렸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달 초 기준금리를 연 3.25%로 0.5%포인트 낮춘 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국이 발표한 주요 재정정책

미국	민주당이 최대 1000억달러 규모 2차 경기부양책 추진
일본	전 가구에 총 2조원 규모의 경제 지출을 포함한 27조원(28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발표
영국	24일 추가적인 감세와 공공지출 확대 등 발표 예정
독일	법인세 감감 및 고용유지 등에 500억유로(640억달러) 지출
중국	2010년까지 4조위안(6000억달러) 철도건설 등에 투자
러시아	약 200억달러의 공적자금으로 중소기업·기업 지원

자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백성원 기자 pswh@hankyung.com

“한국같은 나라가 IMF자금 갖다써야”

칸 IMF총재, 이 대통령에 제한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기자단과 만나 칸 총재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칸 총재가 한국 같은 나라가 IMF 자금을 갖다써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며 사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IMF 돈을 쓰면 나라가 어려워진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부 핵심 관계자도 “IMF는 국제수지나 경제성적이 좋은 나라에 조건 없이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자금을 갖다쓰라고 하는데 아직 검토하

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칸 총재에게 죄송하지만 IMF가 과거 신흥국에 취한 조치는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고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IMF가 재원을 더 확보해(신흥국 등) 유동성이 필요한 국가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칸 총재가 한국에 사용하라고 제안한 자금은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제도(SLF: Short-term Liquidity Facility)를 말한다. SLF는 기본적인 경제토대는 건전하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IMF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자한 금액의 5배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받은 구제금융과 달리 엄격한 조건을 달지



않고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IMF 구제금융의 부정적 이미지가 때문에 아직 한 나라도 신청하지 않았다. I

MF에 44억달러를 출자한 한국은 최대 220억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IMF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한국과 스웨덴 등 3개국에 SLF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IMF가 한국에 돈을 조건 없이 갖다쓰라는 것은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좋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지금 IMF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미국)=송가용 기자 sky@

머니투데이

“에너지株에 베팅”

버핏, 정유·전력주식 대거 매입



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Berkshire Hathaway가 주가가 폭락했던 3분기에 에너지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NBC방송에 따르면 Berkshire Hathaway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현재 세계 5위 정유업체인 코노코필립스 주식 8396만주를 보유, 지분율 5.6%로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Berkshire Hathaway는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1750만주 정도 갖고 있었으나, 6월 말까지 5970만주로 늘리고 3분기에도 추가로 2426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Berkshire Hathaway는 또 전력과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튼코프의 주식도 3분기에

290만주 새로 사 모았다. 에너지 회사인 NRG에너지 주식도 320만주에서 500만주로 54% 늘렸다. Berkshire Hathaway는 NRG에너지 주식을 지난 2분기에 처음 매입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버핏 회장이 에너지주 급락을 이용해 장기 투자목적에서 보유 지분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램파트너스의 제프 매튜는 “버핏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주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원유 수요가 줄면서 생산도 감소했지만 중국의 원유 수요가 결국 미국 수준으로 올라갈 날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버핏은 2003년 5억달러를 투자한 페트로차이나 지분을 지난해 10월 전량 매각, 35억달러를 챙긴 바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美금융권 구제금융 받기 경쟁 치열

최소 110개 은행, 재무부에 1,700억弗 요청... 더 늘어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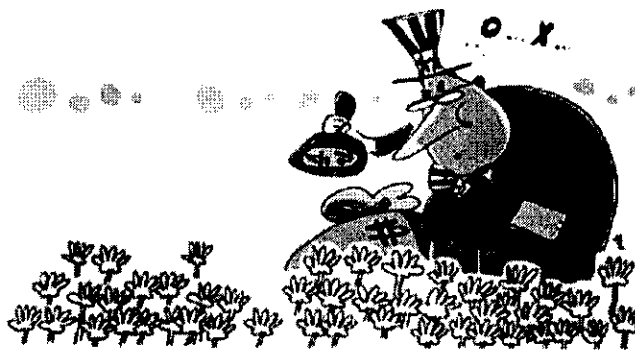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미국 월가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지(WP)는 미국 은행들의 신청 현황을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 주말까지 미국 은행 최소 110곳이 미 재무부에 1,7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WP는 금요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부자금을 원하는 은행들의 신청이 폭증했을 수 있다고 언급. 최종 신청 은행 숫자 및 희망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은행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전국에 걸쳐 수십 개 은행이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의 7,000억달러 구제 금융안의 1차분인 3,500억달러 중 은행 부문에 할당된 은행자본 매입 용 2,500억달러에 관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은행 할당 자금 중 절반인 1,250억달러를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웰스파고·시티그룹

정부 지원결정, 은행 M&A구도에 영향줄 듯



JP모건체이스 등 9개 대형 은행에 투입했다.

투자자문사 키프 브루에트 앤 우즈에 따르면 현재 62개 미국 은행이 재무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 승인받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규모는 총 1,7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은행 48곳은 총 65억달러의 자본투입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금요일 한팅턴 뱅크

세어스, 코메리카, 키코프 등 일부 은행들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은행 간 회비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결정이 은행간 인수합병(M&A) 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부실은행은 지원하

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기에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어떤 은행을 살릴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아직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구제 금융 금액 약 800억달러를 둘러싸고 이를 받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정부에 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따내지 못한 은행들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 도장을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며 "앞으로 은행간 M&A 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 재무부가 최근 구제금융안 2차분 3,500억달러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비자 신용부문에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도 은행들의 자금 수지를 한층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원대상에서 빠진 은행들은 미 재무부의 추가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번 정부의 입장 변경으로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김희원기자 hsewk@sed.co.kr

中, 경기부양에 2400조원 투입

지방정부·민간 투자도 잇달아...정부 발표의 3배 달해

이강 인민銀 부총재 “이젠 통화팽창 정책 펼 것”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할 자금 규모가 지금까지 발표된 4조위안(약 800조원)을 훨씬 초과, 12조위안(약 2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장샤오징 거시경제분야 주임은 “정부가 발표한 4조위안은 2010년까지 투자할 자금 규모”라며 “이는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만 4조1000억위안을 집어넣을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민간투자도 잇따

를 것이어서 이를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12조위안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4조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광둥성 정부는 1조3000억위안, 산둥성 정부는 8000억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장 주임은 “중장기 투자계획은 이달 말 경제공작(운용)회의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내년 초 전국인민대표자대회(국회)에서 자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인플레이 우려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통화팽창을 막는 것이 아니라 통화팽창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연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인플레이는 장악된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펴는 재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8%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어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국제 신용평가·회계기준 '대수술'

EU, S&P등 신평사 평가모델 공개·美·英 통일회계기준 마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용평가와 회계기준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건전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각국이 신용평가사 규제 및 회계기준 개선 등에 대한 중·단기 행동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EU 신평사 등록 의무화 등 추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부실 평가'로 금융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신용평가사들의 감독기관 등록과 신용등급 평가 모델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신평가사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신평가사들이 구조화상품(금융파생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금융위기 초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평가사들은 앞으로 유럽에서 영업하려면 감독기관에 등록하고, 신평가사 사용 모델과 전제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자신들이 등급을 매기는 구조

EU의 신평가사 규제안 주요 내용

- EU 내 영업 위해선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 신평가 모델과 전제조건 등 공개
- 등급산정 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 금지
- 구조화상품 등급산정 전문능력 입증해야
- 이사회에 3명의 독립이사 뒤야
(1명은 구조화금융 전문가여야 함)
- 연례 투명성 보고서 발간해야

화상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들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조화상품의 등급 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사회에 적어도 세 명의 독립이사를 뒤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구조화금융 전문가여야 한다. 이 밖에 신평가사들은 등급 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담은 연례 투명성 보고서도 내야 한다. 새 규정은 EU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10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미국도 신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에선 신평가사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 규제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EC는 오는 19일 신평가사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신평등급 책정에 관련된 직원이 해당 기업과의 수수료 협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회계기준 개혁 움직임도 가속화
국제회계기준을 만드는 양대 조직인 영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최근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연일 회의를 열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도 만들었다.

두 조직이 2002년부터 논의 중인 국제회계기준 통일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워크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중 110개 미 대기업에 대해 2010년부터 미 회계기준(US GAAP)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통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시 시가평가를 일시적으로 유보시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EU와 일본은 시가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미국은 구제금융법에 시가평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박성원 기자 psw@hankyung.com

‘CDS 청산소’ 설립 탄력받는다

〈크레디트디폴트스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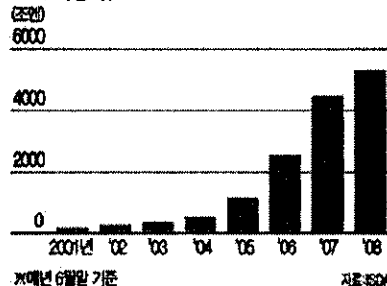
거래 불투명 해소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거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DS 청산소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CDS와 장외시장(OTC) 상품에 대한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추진해온 CDS 청산소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DS 청산소는 장외시장에서 이뤄져온 CDS 거래를 중개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 손실 처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CDS의 전체 거래 및 손실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는 등 시장이 투명해져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DS 거래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면서 지난 6월 말 현재 거래잔액이 세계적으로

CDS시장 규모



54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연내 1~2개의 CDS 청산소를 설립·운영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월 모건스탠리 도이체뱅크 골드만삭스 등 17개 은행들과 CDS 청산소 설립에 합의한 바 있으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뉴욕증권

거래소·유로넥스트 등도 경쟁적으로 청산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도 연내 CDS 청산소 설립을 가입국 등에 지시할 예정이다. 일본도 내년 중 도쿄증권거래소가 청산소를 설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CDS 청산소의 감독권을 놓고 중앙은행과 증권감독국이 경쟁하는 분위기여서 이 문제가 선결돼야 청산소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광진 기자 kjo@hankyung.com

용어풀이

◆CDS(Credit Default Swap)=금융회사 등이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상대방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제3의 금융사가 수수료(보험료)를 받고 CDS 계약을 맺어 부도 위험을 떠안게 된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 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CDS를 대거 판매했기 때문이다.

✓ 고금리 예금 상품 유치 ✓ 금주중 10% 추가감원

벼랑 끝 몰린 씨티 '생존 몸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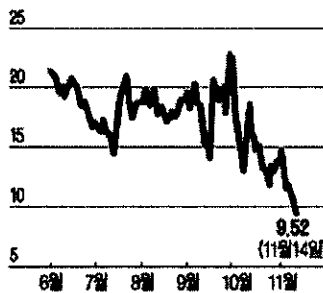
美은행 110곳 구제금융 신청

미국 상업은행인 와코비아를 인수하려다가 웰스파고에 빼앗긴 씨티그룹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을 유치하는 한편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15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분기 말까지 4만100명의 직원을 줄인 씨티그룹은 이번 주 중 10%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씨티그룹이 아직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았다"며 "내년 말까지 총 25%의 인력을 줄여 현재 35만2000명인 직원을 26만4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씨티그룹은 올 들어 주가가 68% 하락하며 지난 주말 9.52달러로 추락했다.

월가에서 씨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비크람 판디트 최고경영자(CEO)가 회

씨티그룹 주가 추이



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와코비아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도 예금 유치와 영업점 확충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경쟁구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영진 교체설이 흘러나온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인스티튜셔널 리스크 애널리틱스의 크리스토퍼 웰런 파트너는 "최근 씨티의 손실률을 보면 내년쯤에는 정부에 자금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씨티

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씨티는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금금리를 잇따라 높이는 등 예금 유치에 뛰어들었다. 씨티는 6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 4%포인트를 더 주는 상품을 내놓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대해 지방 중소은행들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미국에서 최소 110개 은행들이 모두 1700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리서치업체인 키프 브루엣 앤드 우즈(KBW)는 미 재무부가 65개 은행에 1700억달러가량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최종 승인하거나 예비승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8개 은행들이 신청한 구제금융은 65억 달러 규모다.

뉴욕=이아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美감원한파 금융·IT업계로 확산

피델리티 1,700명·선마이크로 6,000명등 감축 계획
지난달 개인파산 신청도 8%나 증가 10만건 넘어

미국 금융업계의 감원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도 인력 감축의 사정권에 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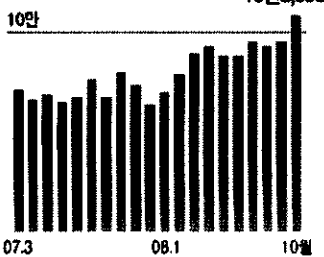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의 뮤추얼펀드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6년 만의 최대 규모인 1,700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액수의 투자금을 회수,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탓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델리티는 지난 12월 이미 1,3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씨티그룹도 그룹 내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 추가로 1만명 정도의 인력을 줄일 예정이다. 씨티그룹은 이

미국 개인파산 신청건수

(단위:건수)
*출처:뉴욕타임스



자동차 '빅3' 지원·2차 경기부양책 촉각

미국중시 오늘 '10월 산업생산' 발표·생산자·소비자 물가도 주목

경기하강이 각종 지표로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디트로이트 3사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여부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의회가 열리면 '빅3' 지원방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 중 일부를 자동차 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백악관과 재무부도 구제금융자금을 전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빅3'에 대한 정부 지원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의회는 '빅3' 지원을 위해 자동차 3사 대표들을 불러 경영난에 빠진 이유 등을 듣는 청문회를 갖는다.

이 밖에 G20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경기진작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0월 초에 이어 한 차례 더 기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뉴욕 중시 일정

10월 산업생산지수
17일 10월 제조업 가동률 지수
11월 뉴욕제조업 지수
18일 10월 생산자물가 지수
10월 소비자물가 지수
19일 10월 주택건설 허가 및 착공 건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10월29일)
20일 최초 실업 청구 수당 건수
21일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포터 BMO캐피탈마켓의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나라별로 강력한 재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참가국들이 구체적으로 세계경기를 어떻게 진작시킬지 합의하지 않았지만 국가별로 실효성 있는 내수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지난 10월 58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브라질도 이번 주중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버락 오바마 당선자 측과 민주당에서 빅3에 대한 지원과 합

계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지만 최근 경기흐름에 비춰 밝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7일에는 10월 산업생산이 발표되고 뉴욕 일대의 제조업 현황을 보여주는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가 공개된다.

18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음날인 19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각각 발표된다. 19일에는 또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사록이 공개된다.

3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전망 하향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롭슨파이낸셜에 따르면 3분기 중 S&P500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주일 전 13% 하락할 것이라 예상보다 악화된 것이다.

잭 아블린 해리스뱅크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신용시장에서 실물경기 쪽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며 "불행하게도 각종 경제지표들이 밑으로 향하면서 실물경기 위축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뉴욕·이덕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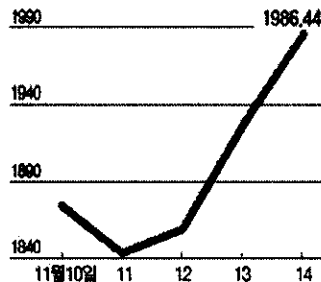
금리 추가인하로 반등장 지속 기대

중국중시

이번 주 중국중시의 관심사는 '경기부양효과'의 지속성 여부다. 정부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뒤 잇따라 구체안이 발표되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주 3일 연속 오르며 2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거래량도 크게 증가해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만간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거시경제의 운용 방향을 통화억제가 아닌 통화 확대로, 긴축이 아닌 성장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확대나 기업의 이익증가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태평양증권은 최근 발표한 A주(내국인 전용)시장 보고서에서 앞으로

두 달 후 보기 드문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하락기는 끝났고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비유통주의 유통화 물량이 다. 내년과 2009년 나올 비유통주 물량은 이론적으로 각각 3조7000억위안어치와 3조9000억위안어치다. 이 중 매물화 가능성이 큰 것만 따져도 각각 5100억위안과 5900억위안 정도 된다. 시장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비유통주 매입기금 조성 논의가 시작된 것은 관심을 갖고 볼 일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자해 비유통주의 유통화물량을 거둬들인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저가매수를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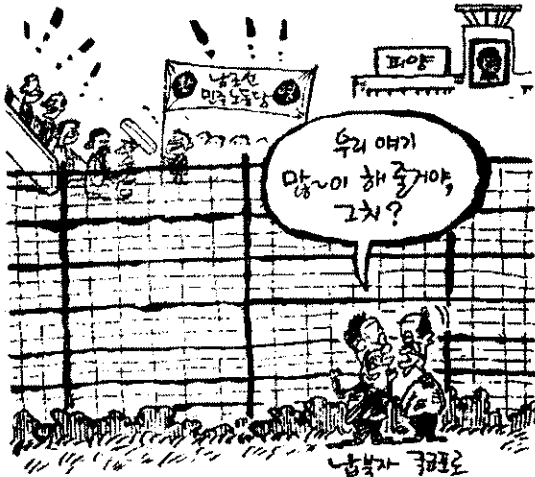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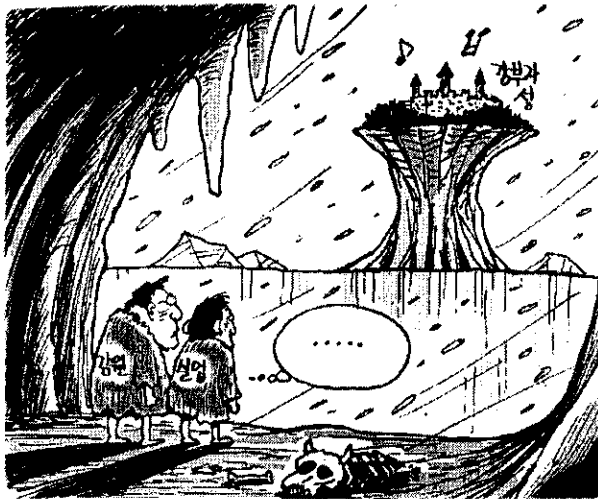
‘인권정당’ 방북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판



장봉군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1등 선부감	2등 선부감	3등 선부감	4등 선부감
예쁜 여자 선생님	못생긴 여자 선생님	이혼한 여자 선생님	애달픈 여자 선생님



나경원 의원님이 둘러주는 세상의 외혜

G20 “1년간 새 무역장벽 억제”

한국,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에… 4월까지 위기극복 방안 마련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경기부양 등 공동성명

“세계금융 규제 강화-내수 부양”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년4월 2차회의
금리인하-초국적 감독기구 창설은 합의 못해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44건 방치

16년이나 지난 것도
직무태만 비판 여론

3년이상 보유 1주택 종부세 감면 검토

10~20% 수준… 고위 당정회의 등 거쳐 이달 중 결정

살릴 기업-퇴출 기업 가린다

금융위, 이달 ‘기업금융개선 지원단’ 설치

韓·中·日 “통화 스와프 확대”